

전반전
1. 고려대 논술고사 분석 (WMH의 도출원리)
2. WMH(What, Meaning, How)의 내용 파악
3. WMH(What, Meaning, How)에 따른 답안구조 파악

1. 고려대 논술의 기본적 구조	
시간	100분
문제1	①과 ②를 활용하여 ‘관행과 사회변화’에 관해 논술하십시오. (75점)
문제2	③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십시오. (25점) 1. 만약 시민들이 (가)에 나타난 사용 만족감만을 고려하여 메신저 앱 서비스를 고른다면, 몇 명의 시민들이 A를 쓸 것인가 2. 이제 시민들은 (나)에서처럼 총편익을 고려하여 그들이 사용할 앱을 고른다. 각 앱의 사용자가 위 1에서 구해진 결과와 같을 때 현재 사용하는 앱을 다른 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겠는가? (단, 시민들이 앱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앱의 사용자 수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기존의 사용자 수이다.) 이 경우 10명의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3. 모두가 C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보다 시민의 총편익을 더 크게 한다는 것을 보이시오. 그럼에도 (다)의 상황에서는 A에서 C로 전환할 시민이 없다는 것을 보이시오. 이러한 결과를 간략히 해석하십시오.
고려대의 경우 인문계A / 인문계B에 상관없이 인문논술 1문제, 수리논술 1문제를 출제하며 각 75점, 25점으로 배점해놓았습니다. 100분의 시간이 주어짐을 생각해 볼 때, 시간은 75분, 25분을 각 문제에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논술보다는 인문논술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2. 문제 당 글자 수
연세대 800~1300자 사이에서 답안을 자유로이 작성하기를 요구하는데 반하여 고려대는 951~1050자를 엄격히 지켜 답안을 작성하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요작성 과정에서 글자 수를 고려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인문계 A형 VS 인문계 B형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가 속하는 유형의 기출 문제만을 풀곤 합니다. 그러나 인문논술을 인문계 A형과 인문계 B형으로 나눈 것은 단순히 고사장의 부족 때문입니다. 즉, 두 유형에 있어서 문제의 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인문계 A, 인문계 B를 모두 풀어보아야 합니다.

4. 기존의 기출을 그대로 푸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 고려대는 2015학년도를 기점으로 완전히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유형을 담고 있는 기출문제는 2016학년도 모의논술, 2015학년도 모의논술과 2015학년도 논술뿐입니다. 따라서 예전의 기출을 그대로 푸는 것은 독이 될 뿐입니다. 개정 전의

기출을 푼다고 절대 시간낭비 하지 마십시오.
[참고 - 고려대학교 모의논술 해설 中]
고려대학교의 인문계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 방향은 2015학년도를 기해 대폭 변경되었다. 그 전까지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언어논술’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빈틈없이 짜여진 3~4개의 글을 수험생에게 제시하고 이것들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수험생들은 주어진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진 글들 간의 관계를 출제자가 의도한대로 정확히 파악한 후, 주어진 논제에 따라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한 유형의 시험은 글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효한데 비해, 사유의 소재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다소 미흡하였다. 게다가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 해마다 거듭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그 형태를 겨냥하여 ‘맞춤형’ 시험 준비를 하는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다.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차원의 언어 능력과 논리 구성력, 지식 처리 능력을 훈련할 것을 기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특정한 형태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현상은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5. 개정된 고려대 논술, 무엇이 달라졌는가?		
※ 바뀐 것은 인문논술의 발문과 채점기준		
1) 발문의 변형		
이 전	인문계A	①의 세 의견을 활용하여 ②와 ③을 설명하고, 그 세 의견 각각의 장단점에 주목하여 평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십시오.
	인문계B	①의 논지를 바탕으로 ②에 소개된 자발적 결사체들의 특성을 비교 설명하고, 그 결사체들의 공익 실현 가능성과 그 한계를 ③의 관점에서 논술하십시오.
개 정	인문계A	①과 ②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관해 논술하십시오.
	인문계B	①과 ②를 활용하여 ‘관행과 사회변화’에 관해 논술하십시오.
2) 채점기준의 변형		
이 전	ㄱ)	(1)에 제시된 역사 연구의 3가지 관점과 (2)와 (3)에 제시된 사례의 내용을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ㄴ)	(1)에 제시된 3가지 관점에 비추어 (2) 문학과 상상력, (3) 언론과 객관성의 문제를 적절하게 연관시켜 비교하고 있는가
	ㄷ)	(1), (2), (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며 이를 논리적으로 논술하고 있는가
	ㄹ)	900자 분량의 비교적 긴 글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개 정	ㄱ)	글의 내용: 주어진 글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활용’하여 ‘사회발전’ 혹은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있으며, 그 견해가 창의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ㄴ)	글의 구성과 표현: 글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구성되어 있는가
	ㄷ)	글의 형식: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이 적절한가

6. 개정된 고려대 논술에 관한 설명

평가사항	① 주어진 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②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
	③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능력

지난 몇 해 동안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언어논술’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빈틈없이 짜여진 3~4개의 글을 수험생에게 제시하고 이것들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주어진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진 글들 간의 관계를 출제자가 의도한대로 정확히 파악한 후, 주어진 논제에 따라 자신의 글을 작성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상기한 대학 수학능력 중 ①과 ②의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③의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고려대 인문 논술은 이전에 비해 ③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더 중점을 두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①과 ②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③의 능력은 ①과 ②의 능력에 기초하여 발현될 때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요리사들이 정성껏 만든 서너 가지의 요리를 상에 차려 수험생들에게 보여주고 다음과 같은 명시적인 혹은 암묵적인 질문에 대한 수험생의 답을 평가하려 하였습니다.

- 각 요리에 들어간 재료들은 무엇인가
- 재료들이 어떤 비율로 배합되었는가
- 각 재료들이 상에 차려진 전체 요리에서 담당하는 맛은 어떤 것인가
- 각 재료들이 다른 재료들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 상에 차려진 전체 요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 그 요리에 대해 수험생은 어떤 평을 내리고 있는가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이 과정의 역(逆)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요리 대신 수험생은 요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재료들을 제공받습니다. 수험생은 이 재료들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고, 평가자는 그 요리의 맛을 평가할 것입니다.

- 제공된 재료들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 제공된 재료들 중 어떤 것을 사용하였는가
- 선택한 재료들을 어떤 비율로 배합하였는가
- 요리를 어떤 식으로 상에 차려 내놓았는가
- 요리가 남의 것과 다른 독창적인 맛이 있는가
- 요리가 정말 맛있는가
- 미리 마련해 놓은 식탁에 어울리는 요리를 만들었는가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차원의 언어 능력과 논리 구성력, 지식 처리 능력을 훈련할 것을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된 인문계 논술시험 문제 1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바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완성도 높은 한 편

의 논술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제에 충실한 답안은 종전의 유형에 맞춘 답안과는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의 유형에서는 답안의 구성과 거기서 다를 내용이 이미 논제에 제시되어 있었고 수험생은 그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개정된 고려대 논술의 논제는 보편적인 의미의 '잘된 글'을 쓸 것을 수험생에게 요구합니다. 답안이 '잘된 글'이 되려면 구성의 면에서 완결되어야 하며, 국어 문법의 면에서 정확한 문장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띄어쓰기와 맞춤법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논의의 과정은 수험생 스스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제시문은 그 과정에서 참고 문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시문과 전혀 관련을 맺지 못한 채 주제에 대한 논술을 전개해서도 안 되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제시문의 논지를 추종하는 경우도 논제가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제시문은 수험생 스스로 구축한 논의 과정에 포섭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연한 내용은 '논술하시오'라는 논제의 지시에 이미 함의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논술문은 정확한 문장으로 타당한 논리를 전개하여 논자만의 창의적인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7. 고려대 논술고사 채점기준		
채점 기준	①	ㄱ) 글의 내용: 주어진 글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을 넘어 그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있으며, 그 견해가 창의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②	ㄴ) 글의 구성과 표현: 글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구성되어 있는가
	③	ㄷ) 글의 형식: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이 적절한가
고려대의 채점기준은 위와 같이 글의 내용, 글의 구성과 표현, 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래에서 구체화하여 표로써 정리해보겠습니다.		

8. 채점기준을 표로 정리하기	
내용	1. 제시문의 견해들을 정확하게 독해하여 이를 다면적으로 파악하였는가.
	2.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는가. 여기서 글의 '활용'은 주어진 글의 단순한 요약이나 글에 나타난 내용의 적당한 배합을 뜻하지 않는다. 수험생은 주어진 글에서 발견하는 여러 내용들을 자신의 창의적인 사고에 맞춰 적절히 취사선택한 후 그것에 기초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글을 쓸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는 답안은 좋은 답안이 아니다. - 특정한 논제를 중심으로 논술하지 않고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하는 경우. - 제시문의 요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 제시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경우). - 특정한 논제를 제시하더라도 제시된 논거가 논점을 벗어나는 경우. - 자신의 논제에 대해 독창적인 논거들을 제시하더라도, 그것들이 제시문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는 경우.

	- 두 개의 제시문을 단순 비교하거나, 어느 하나를 기준삼아 다른 하나를 해석 및 분석하는 경우 (즉, 무조건적으로 고려대학교의 기존 논술 형식을 따른 경우).
구성 과 표현	1.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성격의 글임을 고려할 때, 글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2. 논술문의 기본 구성인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잘 따르고 있는가
	3. 문장이 유려하며,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하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가
형식	1.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준수하였는가
	2. 비문을 쓰지 않았는가
	3. 원고지 사용법을 준수하였는가

9. 수리논술의 특성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리논술’ 부분입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수리논술’ 부분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수험생의 수학(數學)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리논술’을 위해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수학 과목 실력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넘지 않습니다. ‘수리논술’의 목적은 인간 및 사회 현상을 수리적(양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질문에 맞추어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학 과목 실력보다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학적(양적) 관계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통합형 논술’의 취지에 따라, ‘수리논술’ 부분은 ‘언어논술’ 부분에서 다루는 주제와 밀접하게 혹은 느슨하게나마 연결된 주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고려대의 수리논술은 학생의 ‘수학 실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수를 사용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논술의 답안작성의 핵심은 사회현상을 정확하고도 쉽게 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지 자신의 수학적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리논술은 밀접하게 혹은 느슨하게나마 인문논술과 관련되어 출제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반드시 수리논술의 답안을 작성할 때 이 연관성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수리논술의 특성과 이에 따른 답안작성의 원리는 아래 고려대 답안작성의 원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정리하기]
① 고려대는 100분에 인문논술 1문제, 수리논술 1문제를 출제한다.
② 고려대 인문논술은 951~1050자로 작성해야 한다.
③ 수험생은 인문계A와 인문계B의 논술 문제를 모두 풀어봐야 한다.
④ 기존의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⑤ 고려대는 2015학년도에 인문논술을 완전히 개정하였다.

⑥ 고려대는 '주제에 대해 완성도 높은 한 편의 논술문을 작성'하기를 요구한다.
⑦ 고려대의 채점기준은 글의 내용, 글의 구성과 표현, 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⑧ 고려대의 채점기준은 일반적 글의 평가 기준과 같다.
⑨ 고려대의 수리논술은 학생들의 수학적 실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10. 인문논술의 원리	
원리1	14~18문장으로 개요를 작성한다.
<p>논술고사에서 보통 수험생의 한 문장 당 평균 글자 수는 65~70자입니다. 고려대는 951~1050자로 답안을 작성하기를 요구하며 글자 수가 맞지 않을 경우 감점을 시키기 때문에 글자 수를 반드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951~1050자를 한 문장 당 평균 글자 수인 65~70자로 나누면 14~18문장으로 글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개요를 작성할 때 참고하길 바랍니다.</p>	
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	
이 글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는 보이지 않으나, 분량의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원리2	기본적 원고지 사용법과 표현방법 등 글쓰기의 기본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	
비문도 눈에 띄는데, 예컨대 “사회변화의 요건을 네 가지를”는 “사회변화의 요건으로 네 가지를”이 자연스럽다. 쉼표의 남용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다. 100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쓰면서 문장이 길고 늘어지는 것도 좋지 않은 글쓰기 습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띄어쓰기도 몇 군데 오류가 보이므로 앞으로 글쓰기의 기본부터 다질 필요가 있다.	
원리3	한 문장에 두 개 이상의 연결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구성한다.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연결어에 의해 여러 문장이 연결되는 것은 글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요소이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리4	너무 쉬운 수준의 어휘 및 문장이나 현학적인 어휘 및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용을 지켜 수준 높은 어휘 및 유려한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고려대가 발표한 채점기준	
문장이 유려하며,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하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가	
원리5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용어으로써 논지를 전개하라.
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	
이 답안은 글의 구성이나 내용뿐 아니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원고지 사용법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사회변화’와 ‘사회 변화’를 혼용하고 있는데,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원리6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강력한 어조로 확실히 밝혀라.
<p style="text-align: center;">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p> <p>이 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제시문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으면서 사회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상당히 도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p>	
원리7	주장의 독창성에 너무 목매 필요는 없다. 교과서적인 평범한 논지로 답안을 작성해도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 글쓰기 실력과 고려대 논술 특유의 답안작성 원리에 대한 이해도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p> <p>이와 관련하여 본 답안은 사회발전이 ‘물질문화’ 및 ‘비물질 문화’ 두 측면에서의 발전을 동반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관점 자체는 평범한 논리에 의존한 것으로서 독창성이 다소 결여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제시문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으면서 사회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상당히 도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자신만의 논제를 때로는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논술문의 성격을 지닌 글이 만족시켜야 할 중요한 요건이다. 둘째, 제시문의 활용 또한 단순한 직접 인용을 넘어 본인의 언어로 재해석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재해석은 수험생이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글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 물질문화를 논하는 곳과 비물질 문화를 논하는 곳이 분량 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가 분명하며, 특히 결론 부분에서 본론의 논의를 단순 요약하지 않고 자신만의 제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도 본 답안을 돋보이게 해 준다. 이 글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 분량 또한 매우 적절하다.</p>	
원리8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좋으나, 주제나 제시문의 내용을 벗어나면 안 된다.
<p style="text-align: center;">고려대가 발표한 감점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논제를 제시하더라도 제시된 논제가 논점을 벗어나는 경우. - 자신의 논제에 대해 독창적인 논거들을 제시하더라도, 그것들이 제시문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p> <p>위 답안은 사회발전에 관해 “내부적인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글의 흐름도 비교적 매끄러운 편이어서 일견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로 주어진 제시문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적절히 활용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제시문과 별 관련이 없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대단히 좋지 않은 답안의 사례에 들게 되었다.</p>	
원리9	제시문에 자신의 생각을 맞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제시문을 ‘활용’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고려대가 발표한 감점요인</p> <p>① 제시문을 요약하고 정리한다.</p>	

<p>② 제시문을 주제에 맞춰서 편집한다.</p>	
<p>③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찾는다.</p>	
<p>④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p>	
<p>⑤ 제시문의 주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다.</p>	
<p>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p>	
<p>논술은 각각의 제시문을 단순하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은 요약의 전형을 보여준다. ①은 이러이러하다, ②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내용으로 글의 3/4을 할애했다.</p>	
원리10	제시문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지 말고 자신만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라.
<p>고려대가 발표한 감점요인</p>	
<p>제시문의 주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다.</p>	
<p>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p>	
<p>이 글은 사회발전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며 제시문의 논거들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자신의 관점에서의 재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본 답안이 제시문의 내용이나 표현 등을 상당 부분 그대로 따왔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p>	
<p>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p>	
<p>제시문의 활용 또한 단순한 직접 인용을 넘어 본인의 언어로 재해석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재해석은 수험생이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p>	
원리11	제시문을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 조차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은 답안이다.
<p>고려대가 발표한 감점요인</p>	
<p>제시문의 활용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범하는 실수는 제시문들을 과도하게 인용한다는 점인데, 이 답안은 그 반대의 경우로서 제시문을 전혀 인용하지도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 제시문들을 지나치게 인용하여 답안의 대부분을 제시문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도 좋지 않은 답안이지만, 위 답안처럼 제시문을 전혀 언급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만을 그냥 써내려간 답안도 좋은 답안이 아니다.</p>	
원리12	답안이 전체적으로 유기성을 띄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하라.
<p>고려대가 발표한 가점요인</p>	
<p>사회발전이 좌절되면 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되고 불평등의 심화는 또다시 사회발전의 좌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회제도를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미명으로 묵과하기보다 소시민과 대중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서서 혁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위 답안의 필자는 ①과 ②의 내용을 적절히 이해하고 두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기득권의 반대와 저항'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의 장애물과 원동력에 대한 본인의 논지를 설득력 있게 개진하고 있다.</p>	

원리13	서론 - 본론 - 결론으로 완성된 글을 쓰기 위해서 3문단 ~ 5문단으로 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를 함축하는 것이 좋다.
고려대의 2015 모의논술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답안은 모두 3~5문단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한 문단의 하나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원리14	독창성은 견해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조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려대는 모의논술 평가에서 계속 '독창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고려대가 말하는 독창성이란 견해의 독창성, 즉 하나의 사회현상에 대해 얼마나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지 구조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려대는 학생들의 답안이 서론 - 본론 - 결론의 정형화된 구성을 취하길 원합니다.	
원리15	서론은 2문장 이내로 작성하고, 각 제시문의 주제와 핵심어를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글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고려대는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분석·비교하는 답안을 작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주제를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각 제시문의 주제를 활용하여 어떤 식으로 논지를 전개할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고려대가 선정한 우수답안 사례	
우수답안 사례 1의 서론	제시문 ①은 기술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도록 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고, 이와는 달리 제시문 ②는 제도적 측면에서 잘못된 제도의 문제점과 올바른 제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수답안 사례 2의 서론	사회발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제시문1에서 언급된 '기술'과 같은 물질문화의 발전과 제시문2에서 언급된 '법·제도' 등의 비물질 문화의 발전이 바로 그것이다.
원리16	자신의 견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서론에서 주제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좋다.
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	
'관행'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린 글의 첫 대목은 이후 전개될 내용 전반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글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원리17	본론에서는 제시문의 주제를 활용하여 발문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야 한다.
고려대가 선정한 우수답안 사례	
우수답안 사례 1의 본론	새로운 기술의 발견은 사회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기술의 혁신은 한 사회 내에서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의식주 문제의 해결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고, 따라서 비물질 문화의 발전보다 일반적으로 선행한다. 발명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이 그 기술의 경제적 이점인 것도 위와 같은

	<p>이유에서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발견은 관련 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무수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따라서 국가는 그 사회의 가치관 내에서 알맞은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그것이 기존의 산업 체계와 충돌하지 않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신기술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발전의 양적인 측면이다.</p> <p>그러나 이처럼 기술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문화 지체 현상을 야기한다. 제시문2에서 적절한 법·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역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21세기 초,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지배적이었을 때는 모두가 경제적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 그 결과는 심각한 부의 양극화와 공룡 기업들의 횡포가 전부였다. 물질 문화는 맹목적인 성장만을 좇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질적 측면의 사회발전은 반드시 적당한 규제를 수반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발전은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 모두를 포괄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우리 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p>
<p>우수답안 사례 2의 본론</p>	<p>이를 토대로 논하면, 사회발전은 기술을 개발, 수용하여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제도의 수립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실현시킬 때에 가능해진다. 그리고 대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상승시켜 주는 기술은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제도 또한 정의나 공정함과 같은 뜻을 확고히 하면 올바르게 수립되어진다.</p> <p>그러나 기득권층의 과도한 이익 추구는 위와 같은 기술의 수용과 제도의 수립을 방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시문 ①에서의 ‘타자 재판기’와 ‘전기 조명’은 사회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임에도 기득권층의 경제적 이익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②에서의 문제상황 역시 제도를 수립하는 기득권이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 발전을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p> <p>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모래시계형 사회구조, 사회의 양립화를 발생시키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또다시 기술의 수용과 정당한 제도의 수립을 방해하여 사회의 발전을 저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p>
<p>원리18</p>	<p>결론에서 서론과 본론의 논의를 단순히 요약하는 것은 좋은 답안이 아니다. 결론은 자신만의 제언으로 마무리하라.</p>
<p>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p>	
<p>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분명히 취하며, 특히 결론 부분에서 본론의 논의를 단순 요약하지 않고 자신만의 제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답안을 돋보이게 해 준다.</p>	
<p>원리19</p>	<p>‘제시문’이라는 단어를 쓰지말 것.</p>
<p>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p>	
<p>답안 작성 중에 사용되는 ‘제시문’이라는 단어에 대해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많은 수험생들이 활용 자료로 제시된 글을 가리켜 ‘제시문 1’과 같은 표기하는데 굳이</p>	

‘제시문’이라는 단어까지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번호만 표기하면 충분하다. ‘제시문’이라는 말을 쓰면 전체 1000자 안에서 정작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 글자의 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① ② ③과 같이 번호만 표기함으로써 원고지의 칸을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제시문’이라는 단어를 남발하여 전체 1,000자의 상당 부분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11. 인문논술 대표 오류

[참고 - 고려대학교 모의논술 해설 中]

모의논술 답안들 중에서 전술한 요구에 부응하는 답안은 적은 편이었다. 많은 수험생들이 논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전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유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였다. 2015년부터 새로 마련한 유형은 종전의 유형을 대체하고 폐기하는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논제의 지시 사항은 무시한 채 종전의 유형에 따라 임의로 작성한 답안을 제출하고 평가를 요구하였다. 논제 1의 그 어디에도 주어진 글을 요약하라거나 글들 간의 연관 관계를 밝히려는 지시는 없다. 그 논제는 수험생에게 주제에 관한 논술문을 작성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답안들이 ①과 ②와 ③을 순서대로 요약한 뒤 그 글들 간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설명한 후 수험생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답안은 문제를 잘못을 읽은 것으로서 잘못된 답안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다음은 논제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작성된 전형적 사례들에 해당되는 답안들이다. 답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타자하였기 때문에 예로 든 답안에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오류1 | 단순히 세 지문을 순서대로 요약한 경우

그 첫째가 세 지문을 순서대로 요약한 경우이다. 다음의 사례는 지문을 순서대로 단순히 요약할 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지문들이 글쓰이의 논리 전개를 위한 논거로 사용되어야 비로소 ‘활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의 답안은 ‘논술하라’는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였는데 그것은 답안이 지문을 단순히 요약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답안에는 있어야 할 많은 것이 누락되어 있다. 단순 요약은 논술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제시문 ①, ②, ③에서 법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의 관계를 달리한다. 제시문 ①에서 법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 법은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에 거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민은 자신이 합의한 법에 복종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히 처벌받는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테네를 사랑하는 것은 법에 합의한 것과 같으므로 법률과 재판 판정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한다고 말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립되고 유지되는 법에 사회 구성원이 복종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한 것이다.

제시문 ②에서 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이후에는 사회적 합의를 유도한다. 스파르타의 공동체 지향적인 법과 제도는 왕과 원로원, 시민의 동의하에 만들어졌다. 이후 이 법은 구성원들에게 국가에 대한 복종이라는 가치를 교육하고 주입하였고, 결국 리쿠르고스의 법은 구성원들의 복종을 기반으로 스파르타에 깊이 뿌리내

리게 된다. 리쿠르고스는 자신의 법이 스파르타에 번영을 가져다주었다는 생각에 기뻐했으며, 신탁을 받으러 가기 전 국민들과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기존의 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신탁을 받은 후 그는 법의 영원한 유지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택했다.

제시문 ③에서 법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지는 않는다. 가막도 사람들은 국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풍습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이는 국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에 가막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법이 아니라, 자신들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향당회의의 결정에 합의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살인 사건에 대한 소문이 떠돌아도 그 범인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사내가 국법이 만능은 아니며, 국법이 항상 옳고 공정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에서도 법이 모든 구성원의 합의를 기초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류2 세 지문들 간의 연관 관계를 밝힌 후 그 글들의 내용을 차례로 요약한 경우

둘째로 흔한 사례는 세 지문들 간의 연관 관계를 밝힌 후 그 글들의 내용을 차례로 요약한 경우이다. 위의 답안은 도입부에서 ‘사회적 합의와 법’이라는 주제에 대한 세 지문들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해 언급한 후 본문 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문들에 대한 요약으로 채운다. 이어서 세 지문들 간의 주제적 연관 관계를 부여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짓는다. 첫째 사례에 지문들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한 글쓴이의 이해가 추가된 경우이다. 이 역시 논제의 요구에서 벗어난 답안이다.

1, 2는 사회적 합의와 법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말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3은 법과 사회적 합의가 분리된 사례를 소개한다.

1은 법률을 따르는 것은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를 동반한다고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한다. 소크라테스 자신은 아테네를 사랑했기에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그 누구보다 더 동의했다. 여기에서 법과 사회적 합의는 언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법과 사회적 합의에 동의한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 죽음을 택한 후 그 약속을 어길 수 없는 것이다.

2는 사회적 합의가 법보다 선행된 경우를 보여준다. 리쿠르고스는 입법과정에서 투표와 거부권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얻었다. 그는 기존의 정체를 준수하겠다는 시민들의 맹세를 받고 델포이 신의 확인을, 즉 신의 합의를 받기 위해 떠난다. 신은 그에게 그의 법이 국가를 위한 길이 될 것이라는 만족스러운 답을 내려준다. 이후 리쿠르고스는 시민들의 맹세, 즉 기존 정체를 유지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믿고 자살한다. 리쿠르고스는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였으며 법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오는 것이라 믿었다.

3은 국가의 법과 사회적 합의가 그 길을 같이 하지 않는 사례를 말한다. 외부 사회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가막도에서 인정하는 죄를 짓지 않는 한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가막도에서는 마을의 향당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따르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섬 주민들에게는 제정된 법보다 이 사회적 합의가 중시되며 지켜지는 것이다. 또한 3은 국법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법의 한계를 언급했다.

<p>제시문 1, 2, 3 모두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 말한다. 1은 법이 사회적 합의를 동반한다고, 2는 사회적 합의 이후에 법이 있다고 한다. 이 둘은 사회적 합의와 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3은 법과 사회적 합의는 꼭 연관되어있지 않으며 따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p>	
오류3	세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각각에 대해 논평을 한 경우
<p>셋째로 들 수 있는 전형적인 잘못된 답안 사례는 세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각각에 대해 논평을 한 경우이다. 위의 답안은 첫 문장에서 ‘사회적 합의’에 대해 자의적으로 정의를 내린 후 지문들의 내용을 차례로 요약한다. 그 요약마다 한 문장 내외의 간단한 논평이 첨부된다. 지문 요약 및 논평이 끝난 후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잘된 논술문이 되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하다.</p>	
<p>사회적 합의는 실제 행동으로 법률과 합의를 한 것이다. 1에 따르면 법은 시민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고 교육한 존재이다. 그런 법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을 보고 그 나라를 떠나지 않는다면 법과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거주를 이전하지 않는 행동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경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라를 떠남으로서 합의를 거부해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비난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합의 때문이다. 계속 아테네에 거주함으로써 법률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뜻을 거부하여 나라의 뜻을 따른다는 합의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p> <p>한편, 사회적 합의와 법률은 나라를 지도자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도자에게 복종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2에 따르면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이며 개인은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개인은 어렸을 때부터 규칙과 제도에 교육받아야 하며 국가에 대한 복종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 지식 교육을 최소화하고 복종교육을 최대화 하는 것을 실제로 국가에 적용한 스파르타는 결국 군사적 강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사회에 묶는 법률과 사람들을 사회에 복종시키는 사회적 합의를 고안해 낸 리쿠르고스는 국가의 정체 유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합의와 법률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p> <p>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법률과 사회적 합의는 별개의 것이다. 3을 보면 법률인 국법과 사회적 합의인 가막도의 풍습은 서로 충돌하고 있다. 법률이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고 바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가막도 주민들이 그들끼리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들의 정서에 맞는 새로운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그들만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세 지문을 종합하면 결국 법률은 개인의 행동에 제한을 두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국가에 응하고 그 집단의 법률을 따르는 것이다.</p>	
오류4	지문들을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는 경우
<p>지문들을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그 사례를 하나 들도록 한다. 위의 답안은 지문들을 활용이라는 논제의 요구를 거의 무시한 답안이다. ①, ②, ③의 내용은 130자 정도로 간단히 요약해 버리고 글의 대부분은 논제가 던진 주제에 대해 논술하고 있지만 그 글은 지문과 무관하게 작성되었다. 그렇게 작성된 글의 논리와 논지가 설령 적절하고 그 내용이 그럴싸하더라도 그런 면들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논제의 요구를 외면한 답안은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p>	

번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상기한 경우들은 지문들에 매몰되거나 수렴됨으로써 논제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에 비해 주제와 관련하여 수험생 스스로 논의를 구성하고 지문을 주제적으로 포섭하면서 글을 작성한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은 틀에 박힌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스스로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시험을 통해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을 우선시하며 정해진 법을 따르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②는 사회적 합의와 법을 동등한 것으로 보고 서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③은 사회적 합의를 법보다 우선시하며 이때의 사회적 합의를 풍습이라 칭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이 정해진 것인지 법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닭과 달걀의 관계 같은 것이다. 사람들 간의 합의점을 기록해놓은 것이 법이지만 법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법이 강제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와 법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법은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익을 기대하고 법을 따르지만 만약 법이 그것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 법을 따르기 거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법은 사람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사람들은 다시 합의를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양성 평등적 사회로 전환된 후 호주제 폐지가 일어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사회의 유지에 기여했던 호주제가 현대에 와서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으로 취급되어 폐지된 것이다.

한편 법보다 풍습을 중시하는 사회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집단에서 구성원끼리 합의된 내용이 국가적으로 합의된 내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집단들은 국가와 공유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공유하는 법, 즉 풍습을 형성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풍습은 상당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풍습을 버리고 법을 따를 것이라 예상하긴 힘들다. 풍습이 그 집단의 결속을 강화해주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풍습이 법에 어긋난다면 법은 다수의 합의에 따라 풍습을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 고려대가 선정한 인문논술 우수답안]

[서론 - 제시문들의 주제와 글의 방향 제시]

제시문 ①은 기술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도록 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고, 이와는 달리 제시문 ②는 제도적 측면에서 잘못된 제도의 문제점과 올바른 제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본론 -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논증을 설득력 있는 근거로써 전개]

이를 토대로 논하면, 사회발전은 기술을 개발, 수용하여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제도의 수립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실현시킬 때에 가능해진다. 그리고 대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상승시켜 주는 기술은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제도 또

<p>한 정의나 공정함과 같은 뜻을 확고히 하면 올바르게 수립되어진다.</p> <p>그러나 기득권층의 과도한 이익 추구는 위와 같은 기술의 수용과 제도의 수립을 방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시문 ①에서의 ‘타자 재판기’와 ‘전기 조명’은 사회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임에도 기득권층의 경제적 이익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②에서의 문제 상황 역시 제도를 수립하는 기득권이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발전을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p> <p>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모래시계형 사회구조, 사회의 양립화를 발생시키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또다시 기술의 수용과 정당한 제도의 수립을 방해하여 사회의 발전을 저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p>
<p>[결론 -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힘]</p>
<p>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 즉, 사회를 변화시킬 때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시민, 대중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모습이 보편화 된다면 사회는 그 스스로가 가장 능률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추구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통, 관습이라고 이어져 오는 올바르지 못한 사회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p>

<p>12. 수리논술의 원리</p>	
<p>원리1</p>	<p>고려대가 수리논술을 출제하는 이유는 수학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로써 표현된 사회현상을 글과 수로써 설명 및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p> <p>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리논술’ 부분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수리논술’부분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수험생의 수학(數學)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리논술’을 위해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수학 과목 실력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넘지 않는다. ‘수리논술’의 목적은 인간 및 사회 현상을 수리적(양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질문에 맞추어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학 과목 실력보다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학적(양적) 관계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p>	
<p>원리2</p>	<p>필요 없이 그래프나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기보다는 표와 글로써 쉽게 설명하라.</p>
<p>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프를 사용하거나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 표와 글로써 풀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5 모의 논술 자료집에서 우수답안사례로 선정된 수리논술 답안은 모두 표와 글로써 설명을 하였습니다.</p>	
<p>원리3</p>	<p>인문논술과의 관련성을 간략하게라도 밝혀주는 것이 좋다.</p>

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
‘통합형 논술’의 취지에 따라, ‘수리논술’ 부분은 ‘언어논술’ 부분에서 다루는 주제와 밀접하게 혹은 느슨하게나마 연결된 주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
수리논술 부분은 ‘언어논술’ 부분에서 다루는 주제와 밀접하게 혹은 느슨하게나마 연결된 주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필지의 크기와 비옥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농민 당 세금을 부과하는 인두세는 절대적 평등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리고 필지의 크기를 고려하여 필지 당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상대적 평등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리고 필지에 비옥도까지 고려하는 정책은 실질적 평등과 관련된 개념이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연관관계를 수리논술의 답안에 적절히 밝혀주는 것이 좋다.

[참고 - 고려대가 선정한 수리논술 우수답안]																								
1번 문제																								
1. 시민 X가 A 또는 B를 사용할 때, 얻는 만족감은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border="1"> <tr> <td>X</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d>...</td> <td>10</td> </tr> <tr> <td>A</td> <td>2</td> <td>4</td> <td>6</td> <td>8</td> <td>10</td> <td>...</td> <td>20</td> </tr> <tr> <td>B</td> <td>9</td> <td>8</td> <td>7</td> <td>6</td> <td>5</td> <td>...</td> <td>0</td> </tr> </table>	X	1	2	3	4	5	...	10	A	2	4	6	8	10	...	20	B	9	8	7	6	5	...	0
X	1	2	3	4	5	...	10																	
A	2	4	6	8	10	...	20																	
B	9	8	7	6	5	...	0																	
이 때, 시민 1,2,3은 B를 사용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시민 4~10은 A를 사용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는 7명의 시민이 A를 사용할 것이다.																								
2번 문제																								
질문 1에서처럼 시민들이 각자의 사용 만족감을 고려하여 선택을 내릴 경우, A 7명, B 3명으로 A의 사용자 수가 더 많게 될 것이다. 이 때,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까지 고려한 총 편익을 따진다면, 시민 3의 경우 A는 13의 총 편익을, B는 10의 총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 3은 자신이 사용하던 B를 A로 교체할 것이다. 시민 3이 사용하는 앱이 B에서 A로 바뀔 경우 시민2 역시 시민 3과 같은 이유로, 즉 A를 사용할 때의 총 편익이 B를 사용할 때의 총 편익보다 커지게 되므로, 자신이 사용하던 B를 A로 교체할 것이고, 그 결과 시민 1 역시 더 큰 총 편익을 제공하는 A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요컨대, 시민들이 총 편익을 고려하여 그들이 사용할 앱을 고르는 경우,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연쇄적인 작용을 통해, 10명의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번 문제																								
모든 시민이 C를 사용할 경우 각자의 총 편익은 $(2X+5)+10$, 즉 $2X+15$ 인데 비해, 모든 시민이 A를 사용할 경우 각자의 총 편익은 $2X+10$ 이므로 모두가 C를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의 총 편익을 더 크게 한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A를 사용하는 (다)의 상황에서 시민들은 각자 $2X$ 의 사용 만족감에 사용자의 수 10 을 더한 $2X+10$ 의 총 편익을 얻는 반면, 이 시점에서는 C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0이기 때문에 C를 사용할 때 얻는 총 편익이 $2X+5$ 에 그치게 된다. 즉, 사용 만족감만을 비교하면 A대신 C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즉 기득권을 잡은 상품은 조금 더 개선된 신상품에 비해 우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문논술과의 관련성을 짚어낸 부분)																								
[참고 - ‘관행과 사회변화’]																								

평가

수식을 가급적 배제하고 언어적 설명만으로 핵심적 논리를 잘 짚어내어 우수한 답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논제 3에 대한 논술에서, 모든 시민의 총편익의 합을 구하기보다 개개 시민에 있어 앱 C의 사용으로 인한 총편익이 크다는 사실만을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같은 결론이라면 **가급적 핵심이 되는 내용만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고, 단순히 수식을 쓰는 것보다 설명과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이 좋다.**

고려대학교 논술 독해의 수단	
2015 고려대 인문계A 출제의도	<p>논제 1의 주제는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이다. 이 주제는 내용 상 ‘더불어 사는 삶’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로 분할된다. ‘더불어 사는 삶’ 부분에서는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 부분의 논의에서 ③의 내용이 활용될 수 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의 부분에는 글 ①과 ②가 관련된다. ①과 ②는 ‘더불어 사는 삶’과 관련한 부정적인 사례들을 전한다. 수험생은 그 사례들에 대한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제시문을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와 논리를 구사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채점기준이다. ‘더불어사는 삶’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정의하려고 한 경우,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 대안을 든 경우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p>
2015 고려대 인문계B 출제의도	<p>논제 1의 주제는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p> <p>[중략]</p> <p>다음으로 ‘좋은 삶’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수험생들은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배경 지식과 사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논술해야 한다.</p> <p>마지막으로 수험생은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즉 좋은 삶의 실현 방안에 대해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견해를 전개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과 미래 비전을 담아 제시문을 정확히 해석하고, ‘좋은 삶’에 대한 학생 자신만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제시문을 적절하게 활용하였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p>
What	<p style="text-align: center;">‘A’(핵심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화, 추상화. 2. 각 제시문의 논지의 차이를 밝힐 것.
Meaning	<p style="text-align: center;">각 제시문들이 보여주는 ‘A’(핵심어)의 의의나 가치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hat과 How의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으로 각 제시문을 What과 How에 따라 독해한 것을 바탕으로 ‘A’의 의의나 가치 혹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서술. 2. 상징적 표현에 주의할 것. <p>Ex) 지도의 방위, 축적, 거리 ->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한 방향, 방법</p>
How	<p style="text-align: center;">‘A’(핵심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논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시문에서 나온 해결책 외에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역’을 생각해볼 것. <p>Ex) 제시문에서 나온 해결책이 사회적 감정(정신)이라면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추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해결책이 모두 정리되면 이제 그 내용을 구체화. <p>Ex) 사회적 감정 -> SNS를 통한 사회적 감정의 전 세계적 교류</p>

고려대학교 논술 답안 가이드라인	
서론 [2문장]	① 각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핵심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호기심을 유도. [What]
	1. 일반화, 추상화
	2. 각 제시문의 논지의 차이를 밝힐 것
	원리16
	자신의 견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서론에서 주제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좋다.
	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
	‘관행’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린 글의 첫 대목은 이후 전개될 내용 전반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글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② 각 제시문의 주제와 핵심어를 밝히며 앞으로의 논의에 대한 방향을 설정. [Meaning]
원리15	
서론은 2문장 이내로 작성하고, 각 제시문의 주제와 핵심어를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글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고려대가 선정한 우수답안 사례	
우수답안 사례 1의 서론	
제시문 ①은 기술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도록 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고, 이와는 달리 제시문 ②는 제도적 측면에서 잘못된 제도의 문제점과 올바른 제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수답안 사례 2의 서론	
사회발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제시문1에서 언급된 ‘기술’과 같은 물질문화의 발전과 제시문2에서 언급된 ‘법·제도’ 등의 비물질 문화의 발전이 바로 그것이다.	
본론 [10문장]	① 서론에서 내린 핵심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각 제시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의의나 가치 혹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서술. [Meaning]
	1. What과 How의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으로 각 제시문을 What과 How에 따라 독해한 것을 바탕으로 핵심어의 의의나 가치 혹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서술.
	2. 상징적 표현에 주의할 것. Ex) 지도의 방위, 축적, 거리 ->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한 방향, 방법
	② 각 제시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How]
	1. 제시문에서 나온 해결책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는지 ‘역’을 생각해볼 것. Ex) 제시문에서 나온 해결책이 사회적 감정(정신)이라면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추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2. 해결책이 모두 정리되면 이제 그 내용을 구체화 Ex) 사회적 감정 -> SNS를 통한 사회적 감정의 전 세계적 교류
	원리18
결론에서 서론과 본론의 논의를 단순히 요약하는 것은 좋은 답안이 아니다. 결론은 자신만의 제언으로 마무리하라.	
고려대 모의논술 평가 中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분명히 취하며, 특히 결론 부분에서 본론의 논의를 단순 요약하지 않고 자신만의 제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답안을 돋보이게 해 준다.	

고려대학교 논술의 전형적 답안 구조	
서론 [2문장]	① 각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핵심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호기심을 유도. [What]
	② 각 제시문의 주제와 핵심어를 밝히며 앞으로의 논의에 대한 방향을 설정. [Meaning]
본론 [10문장]	① 제시문 ①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의의나 가치 혹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서술. [Meaning]
	② 제시문 ②를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의의나 가치 혹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서술. [Meaning]
	③ 제시문 ③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의의나 가치 혹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서술. [Meaning]
결론 [4문장]	① 각 제시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How]

The 논술	2015 고려대 인문계A
--------	---------------

<인문논술>	①, ②, ③을 활용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해 논술하시오. (75점 - 1000자 ±50자)
--------	---

제시문 ①

바나나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며, 총생산량의 15퍼센트 정도는 선진국으로 수출된다. 바나나를 수출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상하기 쉬운 과일의 특성상 신속한 작업이 요구된다. **수확 후 한 달 이내에 소비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바나나 공급망은 대규모의 수직적 통합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즉 소수의 초국적 기업들이 바나나 플랜테이션 농장, 바나나 포장 공장, 바나나 수출용 선박 회사 등을 지배한다.** 세계 바나나 산업은 집중도가 매우 높아, 초국적 기업 3개사가 세계 거래량의 55~60퍼센트를 차지한다.

부유한 국가에서 대형 할인점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바나나는 가격 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 북반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 바나나는 미국과 유럽 등지의 상점에서 매우 잘 팔린다. 수입업체가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바나나를 소매상에게 공급한다면, 그 업체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가격 인하 방식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여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그 결과 바나나의 시장 가격은 계속 하락해왔다.

생산자의 몫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바나나 생산은 코스타리카·파나마 등 임금이 높고 노동조합이 있는 나라에서 에콰도르·브라질·카메룬과 같이 임금이 낮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국가로 이동하였다.** 에콰도르는 바나나 가격을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40~60퍼센트 낮춤으로써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이 되었다. 많은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노동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단기로 고용하거나 노동조합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낮추고 있다. **5천 개가 넘는 에콰도르의 바나나 플랜테이션 농장 중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설령 농장에 노동조합이 있다 해도 초국적 기업의 간섭이 늘어남으로써 그 노동조합은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초국적 기업들이 노동조합이 없는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저가로 바나나를 사들이게 되면, 노동조합이 있는 농장들은 초국적 기업과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농장들은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 아래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 그래서 바나나의 가격은 점점 더 초국적 기업들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하락하는 바나나 가격은 개발도상국의 농민과 농장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비정부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에콰도르 바나나 플랜테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의 임금만으로 한 가족이 살아가는 데 충분치 않다고 한다. **따라서 많은 어린이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들의 나이는 10~11세 정도이다. 보통 하루에 12시간의 노동을 하는 이 어린이들은 대부분 농약이나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About '더불어 사는 삶'

What	재화가 골고루 분배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
------	---------------------------------------

Meaning	국가 간 빈부격차, 근로자의 수단화, 비인도적 처우
How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형평성을 추구.

제시문 ②

신이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말을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말을 기르기 위해서는 말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면 되듯이, **지금 농업의 진흥에 힘쓰려 한다면 먼저 농사에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비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식년시가 있는 해에 크고 작은 과거시험의 응시자가 십만 명도 넘습니다. 이들 십만 명뿐 아니라 이들의 부자와 형제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모두 농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민들을 일꾼으로 부립니다.** 같은 백성이지만 부리고 부려지는 관계가 되면 강자와 약자의 형세가 이루어집니다. **강자와 약자의 형세가 이루어지면 날이 갈수록 농업은 경시되고 과거는 중시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능력을 자부하는 이들은 모두 과거장에 달려가니 농사짓는 일은 어리석은 자나 머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인과 딸자식들을 들로 내몰아 일하게 하니 소먹이고 밭갈이하는 일은 그 절반이 아낙네의 몫이 되고, 풀 베고 방아 찧는 일은 전부 부인네에게 맡겨집니다. 그렇게 되니 변두리의 작은 고을에서 다듬이 소리가 거의 끊어지고 그 결과 온 나라에는 몸을 가릴 옷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부하는 선비와 벼슬아치들은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아 넘기며 옛날부터 그래왔거니 여깁니다.

그러니 어찌 선비들이 농업에 해가 되기만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들은 농업을 심각하게 말살하는 자들입니다. 선비의 수가 백성의 절반을 넘긴 지 백년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날로 중시되는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선비들을 제한하지 않고 도리어 날로 경시되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꾸짖으며 “너희들은 어째서 온 힘을 다해 일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조정에서 날마다 천 장의 공문을 내려 보내고 고을의 관리들이 날마다 만 마디 말로 다그친다 해도 한 바가지 물로 수레 가득한 장작나무의 불을 끄는 격인지라 노력해 봤자 헛수고에 그칠 것입니다.

About '더불어 사는 삶'

What	특권계급이 폐지되고 모두 사회적 생산에 힘쓰는 것.
Meaning	사회적 생산성이 떨어짐. 계급 간 갈등의 심화.
How	사회적 특권계급을 철폐하고 사회적 생산성을 높임.

제시문 ③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우리는 사심 없는 구경꾼만큼 엄격하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사회적 감정이라는 굳건한 기초에 의해 지지된다. 사회적 감정은 주변의 타인들과 하나가 되려는 바람인데, **그 감정은 인간의 본성 속에서 이미 강력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어서 굳이 인위적으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문명이 발전할수록 점점 강화된다.** 사회 상태는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요하며 또한 익숙하다. 인간은 어떤 예외적 상황에 처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을 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 자신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한다. 야만 상태가 빚어낸 고립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인류의 사회적 결합은 견고해진다. 이제 인간 사회는 그 구성

<p>원들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평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p> <p>사회적인 유대가 강화되고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타인의 복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될 뿐 아니라 타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더욱 감정적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을 일종의 본능처럼 당연하게 여긴다. 타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리적 조건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도 필연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감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인간 정신의 발전과 발을 맞추어, 각 개인의 마음속에 사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이런 일체감이 완벽해진다면, 타인을 배제한 채 자기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갈망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진다.</p>	
<p>About '더불어 사는 삶'</p>	
What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감정에 따라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처럼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실천하는 것.
Meaning	사회적 감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 깊이 공감가능.
How	사회적 감정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선진적 시민의식을 함양.
<p>정리</p>	
What	① 재화가 골고루 분배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
	② 특권계급이 폐지되고 모두 사회적 생산에 힘쓰는 것.
	③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감정에 따라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처럼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실천하는 것.
	-> '더불어 사는 삶'이란 사회적 감정을 통해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처럼 생각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실천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Meaning	① 국가 간 빈부격차, 근로자의 수단화, 비인도적 처우
	② 사회적 생산성이 떨어짐. 계급 간 갈등의 심화.
	③ 사회적 감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 깊이 공감가능.
	-> ②는 더불어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①은 이것이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③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적 감정을 제시한다.
How	①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형평성을 추구.
	② 사회적 특권계급을 철폐하고 사회적 생산성을 높임.
	③ 사회적 감정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선진적 시민의식을 함양.
	1. 제시문에서 나온 해결책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는지 '역'을 생각해볼 것. EX) 제시문에서 나온 해결책이 사회적 감정(정신)이라면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추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2. 해결책이 모두 정리되면 이제 그 내용을 구체화				
	EX) 사회적 감정 -> SNS를 통한 사회적 감정의 전 세계적 교류				
	다른 대안	사회적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강제력이 없기에 너무 이상적인 대안일 수 있으므로 제도적 차원에서의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구체화	<table border="1"> <tr> <td>사회적 감정</td> <td> 1. SNS를 통해 바나나 생산의 수단으로 전략한 아이들의 처참한 상황을 생중계하여 사회적 감정 자극. 2. 농업이 사회의 근간이 됨을 강조하여 유학도 농업의 존재 하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실용적 학풍의 유학을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td> </tr> <tr> <td>제도</td> <td> 1. 초국적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설립. 2. 노조설립을 강제하는 국가 내 제도의 완비. 3. 사회적 특권 계급을 철폐하는 법안의 발안. 4. 과거만을 통한 관리선발제도의 수정. </td> </tr> </table>	사회적 감정	1. SNS를 통해 바나나 생산의 수단으로 전략한 아이들의 처참한 상황을 생중계하여 사회적 감정 자극. 2. 농업이 사회의 근간이 됨을 강조하여 유학도 농업의 존재 하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실용적 학풍의 유학을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제도
사회적 감정	1. SNS를 통해 바나나 생산의 수단으로 전략한 아이들의 처참한 상황을 생중계하여 사회적 감정 자극. 2. 농업이 사회의 근간이 됨을 강조하여 유학도 농업의 존재 하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실용적 학풍의 유학을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제도	1. 초국적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설립. 2. 노조설립을 강제하는 국가 내 제도의 완비. 3. 사회적 특권 계급을 철폐하는 법안의 발안. 4. 과거만을 통한 관리선발제도의 수정.				
답안					
서론	‘더불어 사는 삶’이란 사회적 감정을 통해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처럼 생각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실천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②는 더불어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①은 이것이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③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적 감정을 제시한다.				
본론1	②는 선비들이 자신들이 특권계급인 점을 이용하여 조선사회의 근간이 되는 농업에 힘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더불어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병폐를 보여준다.				
본론2	① 또한 바나나 생산의 이익을 초국적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통해 세계화시대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의 독과점이 낳는 문제가 비단 한 사회 내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론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③이 제시하는 ‘사회적 감정’이 필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인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정신적 차원에서 자각하는 것이다.				
본론4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기에 너무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차원에서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결론	이처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농업이 사회의 근간이 됨을 강조하여 유학도 농업의 존재 하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실용적 학풍의 유학을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하고, SNS를 통해 바나나 생산의 수단으로 전략한 아이들의 처참한 상황을 생중계하는				

	<p>등으로 사회적 감정을 자극해야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초국적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설립, 노조설립을 강제하는 국가 내 제도의 완비, 사회적 특권 계급을 철폐하는 법안의 발안, 과거만을 통한 관리선발제도의 수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p>
--	--

<p><수리논술></p>	<p>④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십시오. (25점)</p>
	<p>1) (가)의 상황에서 $\alpha=0$이라고 하자. 만약 정부가 A와 B의 만족도의 합을 가장 크게 만드는 노력의 수준을 A와 B에게 정해 주려고 한다면, 정부가 A와 B에게 부여할 노력의 조합을 구하십시오.</p>
	<p>2) (가)의 상황에서 $\alpha=0$이라고 하자. A는 자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의 수준을 선택한다. B의 노력이 10일 때, A의 노력을 구하십시오. 또 B의 노력이 20일 경우에는 A의 노력이 어떻게 되는지 구하십시오. (단, 만족도가 같다면 A는 높은 수준의 노력을 선택하며, 이는 이후의 질문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p>
	<p>3) (가)의 상황에서 A는 자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의 수준을 선택한다. A로 하여금 20의 노력을 선택하게 만드는 α의 범위를 구하십시오.</p>
	<p>4) (나)의 상황에서 A는 자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의 수준을 선택한다. A로 하여금 20의 노력을 선택하게 만드는 α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이를 위의 질문 3)의 결과와 비교해 (다)의 주장을 평가하십시오.</p>
<p>제시문 ④</p> <p>A와 B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가꾸려 한다. A와 B가 정원을 가꾸는 데 각각 들일 수 있는 노력의 수준은 $\{0, 10, 20\}$의 세 가지이며, 이 수치는 각 노력의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기도 하다.</p> <p>A와 B가 들이는 노력과 그들이 누리게 될 정원의 아름다움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p> $\text{정원의 아름다움} = \frac{3}{5} \times (\text{A의 노력} + \text{B의 노력})$ <p>(가)</p> <p>A는 B에게 공동체의 성원으로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B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A의 만족도도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A와 B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p> $\begin{aligned} \text{A의 만족도} &= \text{정원의 아름다움} - \text{자기 노력의 비용} + (\alpha \times \text{B의 만족도}) \\ \text{B의 만족도} &= \text{정원의 아름다움} - \text{자기 노력의 비용} \end{aligned}$ <p>단, α는 A가 B에 대해서 느끼는 동질감의 정도이며, $\alpha \geq 0$이다.</p> <p>예를 들어, A와 B 모두 10의 노력을 들였다면 정원의 아름다움은 $\frac{3}{5} \times (10+10)=12$이다. B는 정원의 아름다움 12에서 노력의 비용 10을 뺀 2의 만족도를, A는 $2+(\alpha \times 2)$의 만족도를 느낀다.</p>	

<p>(나) 만약 B 역시 A에게 동질감을 느낀다면 A와 B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의 만족도 = 정원의 아름다움 - 자기 노력의 비용 + ($\alpha \times$ B의 만족도) B의 만족도 = 정원의 아름다움 - 자기 노력의 비용 + ($\alpha \times$ A의 만족도)</p> <p>(다)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것보다 타인도 나를 배려할 때, 나는 조금 더 나를 희생해 타인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내가 타인을 도움으로써 얻는 나의 기쁨만을 생각한다. 후자의 경우는 타인을 돕는 것이 나의 기쁨을 크게 할 뿐 아니라, 나를 배려하는 타인의 기쁨이 커져 타인의 그 기쁨이 다시 나의 기쁨으로 돌아온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 기쁨이 커지므로 내가 남을 도울 때 나의 만족도가 더 많이 늘어나고, 남에게 도움 되는 행동 역시 늘어난다.”</p>																																																		
<p>1) 1번 문제 풀이</p> <p>A와 B가 정원을 가꾸는 데 각각 들일 수 있는 노력의 수준은 {0, 10, 20}의 세 가지이고, 정원의 아름다움 = $\frac{3}{5} \times (A\text{의 노력} + B\text{의 노력})$이며, $\alpha = 0$이라는 조건 하에서 A의 만족도 = 정원의 아름다움 - 자기 노력의 비용 B의 만족도 = 정원의 아름다움 - 자기 노력의 비용 이므로 A, B의 노력에 따른 정원의 아름다움의 경우의 수와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5px;">A의 노력</td> <td style="padding: 5px;">0</td> <td style="padding: 5px;">0</td> <td style="padding: 5px;">0</td> <td style="padding: 5px;">10</td> <td style="padding: 5px;">10</td> <td style="padding: 5px;">10</td> <td style="padding: 5px;">20</td> <td style="padding: 5px;">20</td> <td style="padding: 5px;">20</td> </tr> <tr> <td style="padding: 5px;">B의 노력</td> <td style="padding: 5px;">0</td> <td style="padding: 5px;">10</td> <td style="padding: 5px;">20</td> <td style="padding: 5px;">0</td> <td style="padding: 5px;">10</td> <td style="padding: 5px;">20</td> <td style="padding: 5px;">0</td> <td style="padding: 5px;">10</td> <td style="padding: 5px;">20</td> </tr> <tr> <td style="padding: 5px;">정원의 아름다움</td> <td style="padding: 5px;">0</td> <td style="padding: 5px;">6</td> <td style="padding: 5px;">12</td> <td style="padding: 5px;">6</td> <td style="padding: 5px;">12</td> <td style="padding: 5px;">18</td> <td style="padding: 5px;">12</td> <td style="padding: 5px;">18</td> <td style="padding: 5px;">24</td> </tr> <tr> <td style="padding: 5px;">A의 만족도</td> <td style="padding: 5px;">0</td> <td style="padding: 5px;">6</td> <td style="padding: 5px;">12</td> <td style="padding: 5px;">-4</td> <td style="padding: 5px;">2</td> <td style="padding: 5px;">8</td> <td style="padding: 5px;">-8</td> <td style="padding: 5px;">-2</td> <td style="padding: 5px; color: red;">4</td> </tr> <tr> <td style="padding: 5px;">B의 만족도</td> <td style="padding: 5px;">0</td> <td style="padding: 5px;">-4</td> <td style="padding: 5px;">-8</td> <td style="padding: 5px;">6</td> <td style="padding: 5px;">2</td> <td style="padding: 5px;">-2</td> <td style="padding: 5px;">12</td> <td style="padding: 5px;">8</td> <td style="padding: 5px; color: red;">4</td> </tr> </table> <p>따라서 정부는 A와 B의 만족도가 각 4로 최대화되게 하기 위해서 A와 B에게 각 20의 노력을 부여할 것이다.</p>	A의 노력	0	0	0	10	10	10	20	20	20	B의 노력	0	10	20	0	10	20	0	10	20	정원의 아름다움	0	6	12	6	12	18	12	18	24	A의 만족도	0	6	12	-4	2	8	-8	-2	4	B의 만족도	0	-4	-8	6	2	-2	12	8	4
A의 노력	0	0	0	10	10	10	20	20	20																																									
B의 노력	0	10	20	0	10	20	0	10	20																																									
정원의 아름다움	0	6	12	6	12	18	12	18	24																																									
A의 만족도	0	6	12	-4	2	8	-8	-2	4																																									
B의 만족도	0	-4	-8	6	2	-2	12	8	4																																									
<p>문제 2-1)은 A와 B의 만족도의 합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한 A와 B의 노력 조합을 구하는 문제이다. A의 노력과 B의 노력이 높은 값일수록 A와 B의 만족도 합이 커진다. 모든 노력 조합의 만족도를 표로 구하거나 왜 노력이 높은 값일수록 만족도 합이 커지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p>																																																		
<p>2) 2번 문제 풀이</p>																																																		

B의 노력	10	10	10	20	20	20
A의 노력	0	10	20	0	10	20
정원의 아름다움	6	12	18	12	18	24
B의 만족도	-4	2	8	-8	-2	4
A의 만족도	6	2	-2	12	8	4

B의 노력이 10일 때 A가 자신의 만족도가 최대인 6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의 수준은 0이다. 그리고 B의 노력이 20일 때도 A가 자신의 만족도가 최대인 12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의 수준은 0이다. 이는 A가 B에 대해 느끼는 동질감의 정도인 α 가 0이므로 B의 노력 수준과 무관하게 A의 노력이 적을수록 A의 만족도는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문제 2-2)는 A가 자기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할 노력 수준을 구하는 문제이다. B의 노력 수준과 무관하게 A의 노력이 적을수록 A의 만족도는 커지므로, A가 선택할 노력 수준은 0이다. 각각의 B의 노력 수준에서 A의 노력이 0일 때 A의 만족도가 최대가 됨을 보이거나, 왜 B의 노력 수준과 관계없이 A의 노력 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커지는 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3번 문제 풀이

만족도가 같다면 A는 높은 수준의 노력을 선택한다는 전제하에 A의 만족도를 A의 노력과 B의 노력으로 표시하면

A의 만족도 =

$$\frac{3}{5} \times (\text{A의 노력} + \text{B의 노력}) - \text{A의 노력} + [\alpha \times \{(\frac{3}{5} \times (\text{A의 노력} + \text{B의 노력}) - \text{B의 노력})\}]$$

이 때, B의 노력의 값은 [0, 10, 20]으로 각 고정이므로, A의 노력만을 고려하면

$$\frac{3}{5} \times \text{A의 노력} - \text{A의 노력} + \alpha \times \frac{3}{5} \times \text{A의 노력}$$

$$= \text{A의 노력} \left\{ \frac{3}{5}(1 + \alpha) - 1 \right\}$$

이 때 A의 노력에 대한 계수는 양수여야 하므로

$$\frac{3}{5}(1 + \alpha) - 1 \geq 0$$

$$\therefore \alpha \geq \frac{2}{3}$$

문제 2-3)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만 가장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의 노력이 20이 되기 위해서는 α 의 범위가 $\frac{3}{5}(1 + \alpha) - 1 \geq 0 \Leftrightarrow \alpha \geq \frac{2}{3}$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주어진 B의 노력 수준에서 A의

<p>만족도를 A의 노력으로 표시할 때 그 계수가 양수여야 한다는 조건을 이용해 이를 구할 수 있다.</p>
<p>4) 4번 문제 풀이</p>
<p>3번과 마찬가지로 만족도가 같다면 A는 높은 수준의 노력을 선택한다는 전제하에 A의 만족도를 A의 노력과 B의 노력으로 표시하면</p>
<p>A의 만족도 = $\frac{3}{5} \times (A의 노력 + B의 노력) - A의 노력 + \alpha \{ (\frac{3}{5} \times (A의 노력 + B의 노력) - B의 노력 + \alpha \times A의 만족도) \}$</p>
<p>$(1 + \alpha^2)A의 만족도 = (\frac{3}{5}\alpha - \frac{2}{5}) \times A의 노력 + (\frac{3}{5} - \frac{2}{5}\alpha) \times B의 노력$</p>
<p>A가 더 노력할수록 A의 만족도가 커지는 범위는 $\therefore \frac{2}{3} \leq \alpha < 1$</p>
<p>A의 노력이 되기 위한 α의 조건은 2-3)의 경우와 달라지지 않는다. 이로써 (다)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동질감의 정도가 1을 넘어서면 노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만족도가 감소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기 때문이다.</p>
<p>문제 2-4)는 서로가 서로의 만족도를 고려하게 되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려할 때에 비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A의 만족도를 A와 B의 노력 함수로 구체적으로 구하면 A의 노력이 20이 되기 위한 조건은 2-3)의 경우와 달라지지 않음을 보일 수 있다. 이는 ④-(다)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이를 평가할 때 제시문 ④-(다)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p>

The 논술	2015 고려대 인문계B
--------	---------------

<인문논술>	①과 ②를 활용하여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해 논술 하시오. (75점 - 1000자 ±50자)
--------	---

<p>제시문 ①</p> <p>중국에서 지도를 처음 제작한 사람은 상고시대의 풍후다. 최초의 지방지(地方志)는 『산해경(山海經)』이다. 『주례(周禮)』에 따르면 대사도, 직방, 사서, 사험 등의 관리들은 지도와 지방지를 이용해 지세가 험한 곳을 확인하기도 하고 잘못 알려진 지방특산물을 바로잡기도 했다. 전국시대에는 소진과 감무 등이 모두 지도에 의거해 천하의 험함과 평평함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소하는 관중(關中)으로 들어가자마자 먼저 지도와 호적을 입수하였다. 등우와 마원 같은 이름난 학자들도 지도를 잘 활용하여 광무제 때 크게 공을 세웠다. 정현 이후로는 모두가 지도와 호적으로 나라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배우는 이들이 모름지기 지도로 전체적인 지형을 파악하고 지방지로 세세한 이치를 살피는 데 힘쓰게 되었다.</p> <p>진(晉)나라 사람 배수는 축척, 방위, 거리, 높이, 경사, 곡직 등 지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지도의 형태가 지형에 따라 만들어지는 까닭에 이 여섯 가지는 평평함과 험함을 바로잡는 원칙이 된다. 이를테면 지도에 어떤 형태가 그려졌다 하더라도 축척이 없으면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 알 수가 없고, 축척이 있더라도 방위가 없으면 어떤 방향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p> <p>『방여기요(方輿紀要)』에는 방위를 바르게 하고 거리를 판단하는 두 가지가 땅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간혹 지도를 보는 사람들이 이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동남쪽과 동북쪽이 모두 동쪽이기는 하지만, 이를 구별하지 않고 그저 동쪽이라고만 하면 방위가 같아도 거리에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또 거리가 같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산천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도의 그림과 지도에 기재된 내용은 믿을 만한데 지도를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따라서 지도를 읽을 때는 명석함을 발휘해야만 비로소 지도에 나타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방위와 거리를 밝혀 놓았는데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식쟁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p> <p>『손자(孫子)』에서 산림, 요충지, 늪지대 등의 형세를 알지 못하면 군대를 움직일 수 없고, 길 안내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지리적 이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소지하지 않으면 길 안내자도 쓸모없게 된다. 평소에 나라 사방의 지형을 낱알이 분별하여 대강을 파악해 두지 않으면, 임시로 길 안내자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적에게 우롱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충지를 분별하고 완급의 시기를 살펴 마음속으로 올바른 대처 방법을 마련해야 생사와 안위를 확실히 돌볼 수가 있다.</p> <p>군대를 움직이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지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천자가 안으로는 만국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사방 오랑캐 위에 군림할 때, 가지와 줄기의 강약 분별과 주변과 중심의 세력 균형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재상이 천자를 보좌하여 천하를 경영할 때, 변방 가운데 이롭거나 해로운 지역과 군대를 배치해야 하는 곳을 모두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관청과 관원들이 천자를 위해 백성들의 재물을 관리할 때, 재화와 세금이 건</p>	
--	--

히는 곳과 군대와 국가에 쓰이는 물자의 소재를 모두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사와 수령은 천자, 백성, 사직의 위임을 받은 자이니 국토의 관리상태, 농업과 어업의 이익, 민정과 풍속을 모두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백성들은 부역을 위해 오갈 때 수로와 육로의 험한 정도나 길의 형태를 모두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지도를 발판으로 군대를 도와 포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시절이 태평하면 천하를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모두 나의 『대동여지도』에서 얻는 것이 있으리라.

About '좋은 삶'

'상징적 의미의 파악이 가장 중요'
 ②와 함께 독해를 할 때, 지도란 이상적 성격을 가진 신적인 '본'에 대비되는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방안임을 알 수 있다.

What	좋은 삶이란 구체적이고 현실적 계획을 세워 이를 통해 삶의 목적지(이상향)까지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Meaning	아무리 올바른 이상향을 세웠더라도 구체적 실천이 없이는 좋은 삶을 이룰 수 없음.
How	구체적이고 현실적 계획을 세워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시문 ②

“이보게. 인간과 나라는 신적인 ‘본(本)’을 이용하는 화가들이 그 밑그림을 그려 주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걸세. 그래서 화가들이 깨끗한 화판에서 그림을 시작하듯 철학자들은 인간과 나라의 성격들을 먼저 깨끗하게 만든다네. 이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닐세.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철학자들은 개인에 대해서건 나라에 대해서건 아무것도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네. **어찌 되었든 화판이 깨끗해진 다음이라야 철학자는 그 나라 법률의 초안을 마련할 것이고 정체(政體)의 윤곽을 그리게 되지. 그 다음에 그들은 한편으로는 본성에 있어서 올바른 것과 아름다운 것, 절제 있는 것 등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들 안에 생겨나게 하려는 것에 주목할 걸세.** 그런 다음, 여러 가지 활동을 한데 섞어서 인간의 모습을 구성해 낼 것이라네. 이는 호메르스도 인간들 안에 나타난 신의 모습이며 신을 닮은 것이라 불렀던 바로 그것에 근거한 것일세.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은 지워 버리고 또 어떤 것은 다시 그려 넣으며 덧칠을 해갈 텐데, 그 그림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신들의 마음에 들게 되기까지 그렇게 할 걸세.”

“어쨌든 그 그림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나라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향간에 들리는 말이 그 나라는 세상에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네. 그 나라는 이 지상의 어디에도 없다네.**”

“아니, 뭐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껏 있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 논의해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그건 뭘 위해서였죠?”

“**그건 본을 위해서였네. 우리가 올바름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완벽하게 올바른 나라가 생길 수 있을지, 또한 그런 나라가 생긴다면 그게 어떤 나라일지를 탐구했던 것은 말일세. 그 나라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자기네 나라를 가급적 그와 닮게 만들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늘에 본으로 바쳐져 있다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디에 있건 또는 어디에 있게 되건 다름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한번 생각해 보게나 아름다운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본을 그리고서, 그 그림에 모

<p>든 걸 다 표현해 넣은 화가가 단지 그와 같은 나라가 현실 안에 생길 수 있음을 실증할 수 없다고 해서, 자네는 그를 덜 훌륭한 화가라고 생각하는가?”</p> <p>“저로서는 단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p> <p>“그러니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훌륭한 나라의 본을 만들고 있었다고 말 할 수 있지 않겠는가?”</p> <p>“물론입니다.”</p> <p>“그러니까 자넨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자세히 말해 온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걸 보여 주어야만 한다고 강요하지 말게나. 한 나라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가장 가깝게 다스려질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이로써 그 나라가 실재하는 것이나 진배 없지 않겠는가? 자네는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는가?”</p>	
<p>About '좋은 삶'</p>	
What	이상적 삶의 형태를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나아가려는 것.
Meaning	아무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더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사회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좋은 삶이라 할 수 없음.
How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상적 삶의 형태를 그린 후 이를 목표로 살아야 한다.
<p>정리</p>	
What	① 좋은 삶이란 구체적이고 현실적 계획을 세워 이를 통해 삶의 목적지(이상향)까지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이상적 삶의 형태를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나아가려는 것.
	-> 좋은 삶이란 먼저 자아실현과 윤리성, 공익성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이상향을 설정한 후 구체적, 현실적 계획을 세워 실천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Meaning	① 아무리 올바른 이상향을 세웠더라도 구체적 실천이 없이는 좋은 삶을 이룰 수 없음.
	② 아무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더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사회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좋은 삶이라 할 수 없음.
	-> ②는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 이상적 목표의 설정이 중요성을, ①은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보여준다.
How	① 지도에서 축적, 방위, 거리, 높이, 경사, 곡직 등을 잘 이용하여 목적지(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듯 구체적이고 현실적 계획을 세워 이를 통해 삶의 이상을 이루어야 한다.
	② 이상적 삶의 형태를 먼저 그리고 나서 구체적, 현실적 계획을 실행하되, 이 때 이상적 삶의 형태는 윤리성, 공익성을 갖추어야할 것.
	1. 제시문에서 나온 해결책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는지 '역'을 생각해볼 것. EX) 제시문에서 나온 해결책이 사회적 감정(정신)이라면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추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2. 해결책이 모두 정리되면 이제 그 내용을 구체화 EX) 사회적 감정 -> SNS를 통한 사회적 감정의 전 세계적 교류

	다른 대안?	현실적 방안과 이상적 방안이 나왔는데, 현실과 이상은 상호 완결적인 것이기에 더 이상의 대안은 필요 없음.		
	구체화	이상	좋은 삶으로서의 이상향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고려했을 때 자아실현, 윤리성, 공익성을 포함한 것이어야 함.	
		현실	축척	중요도가 높은 계획의 우선 실현.
			방위	구체적 계획의 방향성 점검.
			거리	단기 계획과 장기계획.
		높이, 경사, 곡직	인생에서 맛보는 삶의 굴곡.	
답안				
서론	좋은 삶이란 먼저 자아실현과 윤리성, 공익성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이상향을 설정한 후 구체적, 현실적 계획을 세워 실천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②는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 이상적 목표의 설정이 중요성을, ①은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보여준다.			
본론1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상적 삶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상적 목표가 설정이 된 다음이어야 구체적, 현실적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이상적 목표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것이 이룰 수 없는 목표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에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론2	하지만 이상적 목표의 설정만으로 좋은 삶을 이룰 수는 없다. 구체적, 현실적 실천 또한 필요하다. ①의 지도가 정확한 현실세계의 재현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사회 환경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도에서 축척과 방위를 통해 지형지물의 상대적 위치와 거리를 파악하는 것처럼 자신의 현재 상황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과 노력, 중간 목적지 등을 잘 파악하여 완급조절을 하며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본론3	그리고 정확한 현실인식과 이상적 목표설정 에 따라 설정된 목적지는 계속 검토되어야 한다. 중간 목적지를 한 단계씩 거쳐 갈 때마다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예전에 세운 목표의 가치가 낮아 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검토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에 기반을 둔 공리적 윤리의식이다.			
결론	단순히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킨 것만으로는 좋은 삶을 살 순 없다. '좋다'라는 말은 가치판단을 내포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인의 여정은 타인의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인식과 이상적 목표설정 후 자신의 노력이나 목표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것인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p><수리논술></p>	<p>③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 (25점)</p>
	<p>1) 정부가 5단계 등급 분류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자. 품질 등록 수수료가 10원일 경우 품질을 등록할 지역을 모두 찾으시오.</p>
	<p>2) 5단계 등급 분류 방식에서 정부의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수수료를 구하고, 이때 정부 수입과 지역별 순수익을 구하시오.</p>
	<p>3) 정부가 2단계 등급 분류 방식에서 X값을 71로 책정했다고 하자. 이 경우 정부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수수료를 구하고, 이때 정부 수입과 지역별 순수익을 구하시오.</p>
	<p>4) 질문 3)에서 얻은 결과를 질문 2)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하고, 이에 근거하여 품질 등급 분류 방식의 변화가 정부 수입과 각 지역별 순수익에 미치는 효과의 측면에서 (나)의 주장을 평가하시오.</p>
	<p>5) 2단계 등급 분류 방식에서 정부의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X값과 수수료를 구하고, 이것이 지역별 순수익의 합을 가장 크게 만드는 X값과 수수료와 일치하는지 밝히시오.</p>

제시문 ③

(가)

정부는 국민들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산물 품질 지도를 만들고자 한다.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나누었을 때,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점수는 1~100의 정수로 부여된다).

지역	품질 점수
갑	76
을	81
병	94
정	82

좋은 품질의 농산물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정부는 품질 지도에서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을 공개한다. 품질 등급의 분류 방식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한다.

5단계 등급 분류 방식

등급	점수 구간
A	91-100
B	81-90
C	71-80
D	61-70
E	60 이하

2단계 등급 분류 방식

등급	점수 구간
우수	X~100
보통	X미만

단, X값은 61, 66, 71, 76, 81, 86, 91 중 하나이다.

어떤 지역이 농산물의 품질을 등록하지 않으면 그 지역 농산물의 수익은 60원이다. 반면 그 지역이 품질을 등록하면 그 지역 농산물의 수익은 품질 등급에 대응하는 점수 구간의 평균값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품질 점수가 84점인 농산물의 경우를 고려해 보자. 5단계 등급 분류에 의하면 이 농산물은 'B'등급에 속하고 수익은 점수 구간의 평균값인 85.5원이 된다. 반면 X값이 81로 책정된 2단계 등급 분류에 의하면 이 농산물은 '우수'등급에 속하고 수익은 90.5원이 된다.

정부는 품질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 수수료는 0, 10, 20, 30, 40, 50 원 중 하나이다. 품질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0원이다. 각 지역의 순수익은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수익에서 차감한 값이다. 각 지역은 품질 등록에 따른 순수익이 품질 등록을 하지 않을 때의 순수익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품질을 등록한다. 수수료 부과에 따른 정부의 수입은 등록 수수료에 등록 지역의 수를 곱한 값이다.

(나)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2단계 등급 분류 방식보다 5단계 등급 분류 방식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품질 등록 수수료는 품질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품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질수록 정부의 수입과 지역별 순수익은 더 커진다.”

1) 1번 문제 풀이

5등급 분류에 의해 갑~정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록 수수료 10원을 고려하여 순수익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지역	품질 점수	등급	수익	순수익
갑	76	C	75.5	65.5
을	81	B	85.5	75.5
병	94	A	95.5	85.5
정	82	B	85.5	75.5

갑~정 모두 등록 시에 미등록시의 수익인 60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에 4개 지역 모두 등록을 할 것이다.

문제 2-1)은 5등급으로 분류하는 경우 미등록할 때에 비해 등록할 때 각 지역의 수익을 계산할 수 있고, 등록 수수료가 10인 경우 4개 지역 모두 등록을 한다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2) 2번 문제 풀이

등록수수료가 10원일 때				
지역	품질 점수	등급	수익	순수익
갑	76	C	75.5	65.5
을	81	B	85.5	75.5
병	94	A	95.5	85.5
정	82	B	85.5	75.5

갑~정의 등록 시 순수익이 모두 미등록시의 수익인 60원보다 많기에 모두 등록할 것이고, 정부 수입의 총합은 40원이 된다.

등록수수료가 20원일 때				
지역	품질 점수	등급	수익	순수익
갑	76	C	75.5	55.5
을	81	B	85.5	65.5
병	94	A	95.5	75.5
정	82	B	85.5	65.5

갑은 등록 시 미등록시의 수익인 60원보다 적은 55.5원의 순수익을 올리기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지만, 을~정은 등록 시 순수익이 미등록시의 수익인 60원보다 많기에 등록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수입의 총합은 60원이 된다.

등록수수료가 30원일 때				
지역	품질 점수	등급	수익	순수익
갑	76	C	75.5	45.5
을	81	B	85.5	55.5
병	94	A	95.5	65.5
정	82	B	85.5	55.5

병만이 미등록시의 수익보다 많은 65.5원의 순수익을 올리기에 병만이 등록할 것이며 정부 수입의 총합은 30원이 된다.

이보다 높은 수수료인 40원, 50원을 부여할 때는 어떤 지역도 등록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때 정부 수입의 총합은 0원이 된다.

따라서 정부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수수료는 20원이고, 이 때 정부의 총 수입은 60원이다.

<p>논제 2-2)는 등록수수료에 따른 정부 수입을 열거하고, 정부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수수료와 이에 따른 정부의 수입을 찾아내야 한다. 그 경우 지역 값은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순수익을 모두 맞게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p>
<p>3) 3번 문제 풀이</p>
<p>X = 71인 경우 85.5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수수료가 20원일 때까지는 갑~정 모두 등록을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수수료는 20원이고, 4개 지역이 모두 등록을 하여 정부수입은 80원이 된다. 그리고 지역별 순수익은 4개 지역 모두 65.5원으로 동일하다.</p>
<p>논제 2-3)은 먼저 2단계 등급분류방식에서 X=71인 경우 등록에 따른 수익과 미등록시의 수익을 계산하여 그 차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정부의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수수료는 20원임을 알고, 4개 지역이 모두 등록을 하여 정부수입은 80원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시킨다. 따라서 지역별 순수익은 4개 지역 모두 65.5로 동일하다고 답변해야 한다.</p>
<p>4) 4번 문제 풀이</p>
<p>정부 수입을 5단계 등급분류와 2단계 등급분류로 나눠 비교하였을 때, 2단계 등급분류가 5단계에 비해 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지역의 등록률 측면에서 2단계 등급분류 시 오히려 더 많은 지역이 등록하여 정부의 수입은 증가하고 지역별 순수익의 분산을 축소시킨다. (80원과 60원) 따라서 (나)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질수록 정부의 수입과 지역별 순수익은 더 커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p>
<p>논제 2-4)는 정부 수입을 5단계 등급분류와 2단계 등급분류로 나눠 비교하였을 때, 2단계 등급분류가 5단계에 비해 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등록률 측면에서 2단계 등급분류 시 오히려 더 많은 지역이 등록하여 정부의 수입은 증가하고 지역별 순수익의 분산을 축소시킨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p>
<p>5) 5번 문제 풀이</p>
<p>X = 61인 경우 각 지역 당 80.5원의 수익을 올리므로 20원까지 등록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정부 총 수입은 80원이 되며, 지역 당 순수익은 60.5원이 된다.</p>
<p>X = 66인 경우 각 지역 당 83원의 수익을 올리므로 20원까지 등록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정부 총 수입은 80원이 되며, 지역 당 순수익은 63원이 된다.</p>
<p>X = 71인 경우 각 지역 당 85.5원의 수익을 올리므로 20원까지 등록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정부 총 수입은 80원이 되며, 지역 당 순수익은 65.5원이 된다.</p>
<p>X = 76인 경우 각 지역 당 88원의 수익을 올리므로 20원까지 등록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정부 총 수입은 80원이 되며, 지역 당 순수익은 68원이 된다.</p>
<p>X = 81인 경우 갑은 우수등급에 포함되지 못하고 보통등급으로 분류되어 등록 시 41원의 수익을 올리기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나, 을~정은 지역 당 90.5원의 수익을 올리므로 30원까지 등록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정부 총 수입은 90원이 된다. 따라서 갑의 순수익은 60원, 을~정의 순수익은 60.5원이 된다.</p>

X = 86인 경우 갑~병은 우수등급에 포함되지 못하고 보통등급으로 분류되어 등록 시 43.5원의 수익을 올리기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나, 정은 93원의 수익을 올리므로 30원까지 등록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정부 총 수입은 30원이 된다. 따라서 갑~병의 순수익은 60원, 정의 순수익은 63원이 된다.

X = 91인 경우 갑~병은 우수등급에 포함되지 못하고 보통등급으로 분류되어 등록 시 46원의 수익을 올리기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나, 정은 95.5원의 수익을 올리므로 30원까지 등록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정부 총 수입은 30원이 된다. 따라서 갑~병의 순수익은 60원, 정의 순수익은 65.5원이 된다.

2단계 분류법에서 정부의 총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X값은 81이며, 그 때 수수료는 30원이다. 그리고 지역별 순수익의 합을 가장 크게 만드는 X값은 76이며, 그 때 수수료는 20원이다. 따라서 등급 분류 방식에서 정부의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X값과 수수료는 지역별 순수익의 합을 가장 크게 만드는 X값과 수수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논제 2-5)는 품질기준 X에서 '우수'평가 시 품질의 평균값을 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등록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익을 구할 수 있다. 정부의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수수료 수준과 X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지역의 순수익 합을 극대화하기 위한 X값 및 등록 수수료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후반전

The 논술	2016 고려대 모의 논술
--------	----------------

<인문논술>	①, ②, ③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 논술하시오. (75점 - 1000자 ±50자)
--------	---

제시문 ①

소크라테스 : 법률은 아마도 나에게 말할 걸세. “소크라테스여, 지금 그대가 꾀하는 것으로 그대는 우리에게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그대를 태어나게 하여 양육하고 교육하였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온갖 훌륭한 것들을 그대에게 나눠 주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테네인들 가운데 누구든 원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것들을 갖고서 어디든 자기 원하는 곳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공포하고 있으며 우리 법률의 어느 조항도 그의 이주를 방해하거나 금지하지 않지. 하지만 그대들 가운데 누구든, 우리가 나라를 경영하는 방식을 보고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우리가 시키는 것을 이행하기로 우리와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고 여기지.** 그래서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삼중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그 자는 자기를 태어나게 한 우리에게 불복하고, 자기를 양육한 우리에게 불복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우리를 납득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이지. 소크라테스여, 그대가 의도하는 바를 그대가 행할 경우에는, 그대도 이 비난들을 고스란히 받게 되지. 그것도 아테네인들 중에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만일 법률에게, “그건 무엇 때문이죠”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법률은 내가 아테네인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더 법률과의 합의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나무랄 거야. 법률은 내가 아테네를 사랑하는 증거들을 들면서 말하겠지. “소크라테스여, 그대는 것처럼 열렬하게 우리를 택하였고, 우리를 따라 시민 생활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이 나라가 그대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번 재판의 경우만 해도 그대는 그 재판에서 국외추방의 형량을 제의할 수 있었지. 지금 그대가 나라의 뜻을 거스르며 국외로 탈출하려는 바로 그 일을, 그때는 나라가 기꺼이 허락하는 가운데 할 수 있었다는 말이지. 하지만 그 재판에서 그대는 설령 죽게 되더라도 결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빠기면서 국외추방보다는 죽음을 택했지. 그러나 지금 그대는 자신이 했던 말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거니와 법률인 우리를 존중하느니더니 파멸시키려 하고 있어. 그대는 우리와 맺은 합의 사항들을 어기고 도망하려 함으로써, 가장 미천한 노예나 함직한 짐거리를 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라. 그대가 우리와 시민 생활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 말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써 그러기로 한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말한 것인가” 크리톤, 나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동의할밖에?

크리톤 : 소크라테스, 물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지.

About '사회적 합의와 법'

What	거주지에 적용되는 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거주하
------	---

	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거주지의 법에 따르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준법의무가 나올 수 있음.
Meaning	법치주의 국가에서 준법의무를 어긴다면 국가의 작용은 형해화될 것이다. 묵시적 합의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
How	개인들이 국가 작용에 대한 합의를 더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제시문 ②

고향을 떠나 세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체를 경험하고 공부한 리쿠르고스는 마침내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와 스파르타의 정체를 혁명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입법은 삼 단계로 진행되었다. 지도자를 포함하여 서른 명으로 구성된 원로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시민들이 투표로 법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이 투표 결과에 대해 다시 원로원과 왕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리쿠르고스가 주도한 입법의 핵심은 시민들을 혼자서는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도록, 그리하여 늘 공동체의 유기적 구성원이 되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고, 전적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데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리쿠르고스는 개인의 소유물을 모두 공동 소유로 해서 불평등의 뿌리인 개인의 탐욕을 없애는 한편, **계속되는 공동생활을 통해 사적인 삶의 영역이 남지 않도록 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족의 어른들이 공식적으로 심사하여 기를지 버릴지를 결정했다. 처음부터 건강과 체력을 타고나지 못한 아이는 아이 자신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일곱 살이 되면 아이들을 나라가 맡아 집단생활을 하게 했으니 아이들은 같은 규칙과 제도 아래 놓고 배우는 데 익숙해졌다. 소년들의 교육은 일종의 복종 연습이었다. 읽고 쓰기는 최소한만 배웠고 나머지 교육은 오로지 복종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전투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일에 바쳐졌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은 강해졌고 스파르타는 전쟁 준비보다 전쟁이 더 많은 휴식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마침내 리쿠르고스가 세운 제도들이 스파르타에 뿌리를 내려 충분히 성장함으로써 스파르타는 자력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낀 리쿠르고스는 자신의 입법이 변하지도 멸하지도 않고 후세에 전해지기를 열망했다. **그는 민회를 소집해 놓고 백성에게 이 르기를 이미 취해진 조치들로도 국가의 번영과 미덕을 증진하기에 충분하겠지만 델포이 신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아직 남았으니, 그 절차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기가 델포이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존의 법을 준수하되 바꾸거나 변형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그곳에서 돌아오면 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겠다고 했다. 백성들은 모두 이에 찬동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존의 정체를 유지하고 지키겠다는 맹세를 백성들로부터 받은 다음 그는 델포이로 떠났다. 신전에 도착하자 그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제정한 법이 과연 국가의 번영과 미덕을 증진하기에 충분할 만큼 훌륭하냐고 물었다. **그 법이 훌륭하여 국가가 그의 정체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더없이 추앙 받게 될 것이라는 신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이 신탁을 받아 적어 스파르타로 보냈다. 한편 그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는 것이 아직은 짐스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나이였다. 하지만 그는 곡기를 끊고 굶어 죽었다. 정치가는 죽으면서도 나라에 봉사해야 하는 만큼 정치가의 인생 종말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덕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더없이 훌륭한 일을 성취한 만큼 자신에게는 죽음이 행복의 진정한 완성이 되고, 시민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

<p>신이 생전에 베푼 모든 축복의 수호자가 되고자 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의 정체를 준수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p>	
<p>About '사회적 합의와 법'</p>	
<p>What</p>	<p>사회적 합의란 강요된 합의나 기만에 의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함. 법이란 그 형식으로 인해 정당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때만 정당성이 담보된다.</p>
<p>Meaning</p>	<p>강요된 합의나 국민을 기망하여 얻어 낸 형식적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에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없음. 그리고 아무리 사회적 합의를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결여한 법률에 의해서는 준법 의무가 도출될 수 없음.</p>
<p>How</p>	<p>합의의 내용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가를 선진 국민의식을 가지고 계속 감시해야 함.</p>
<p>제시문 ③</p>	
<p>인규의 얼굴이 새삼스레 굳어진다. 이 사내가 지껄이는 말의 진의를 알 수가 없다.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 인규는 이 사내와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p> <p>“물에서 하면 안 될 얘기를 저한테는 왜 하셨죠?”</p> <p>“들어만 두라는 게지 옮기라곤 하지 않았소. 하긴 옮겨봤자 크게 문제될 것두 없지. 어차피 지난 일이라 새삼스레 뒤집힐 일두 아니구……”</p> <p>“진실이라는 건 소문으루 끝나지 않습니다. 살인이라는 증거만 있으면 그 사건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p> <p>“뒤집혀봐야 어찌겠소? 범인이 잡히질 않을 텐데?”</p> <p>“진실이 밝혀지는데 범인이 왜 안 잡힌단 말입니까?”</p> <p>“외지 사람 하나를 죽였다구 가막도 주민들이 자기들 손으루 제 고장 사람을 잡아서 물에다 넘길 것 같소?”</p> <p>“사람을 죽인 살인범인데도 가막도 주민들은 모른 체한다는 말인가요?”</p> <p>“그게 바로 여기 가막도의 좀 별난 풍습이오. 물에서 죄인으루 점을 찍어두 가막도에서는 소용이 없소. 여기서 인정하는 죄가 아니구는 범인을 쉽게 물으루 내주지 않으니까.”</p> <p>“이상한 풍습이군요? 가막도 사람들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닙니까? 나라에 엄연히 법이 있는데 어떻게 국법을 무시하구 자기들 풍습대루 죄인을 다스린단 말입니까?”</p> <p>“국법이 만능은 아니오. 그리고 국법이 사해(四海) 모든 백성에게 늘 공명정대하구 옳게만 적용되지두 않소.”</p> <p>사내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진다. 노여움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는 슬픈 표정이다. 사연이 있을 듯했으나 인규는 애써 사내를 외면한다. 지금 인규가 알아야 될 일은 이 섬에 떠도는 살인 소문에 관한 것이다.</p> <p>“국법까지 무시하는 그런 결정들은 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p> <p>“마을의 향당(鄉黨)회의오.”</p> <p>“언제부터 그런 회의가 있었죠?”</p> <p>“이 섬에 처음 입도(入島)한 도주(島主)때부터 있었다구 합디다. 중간에 더러 중단되기도 했지만 아마 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모양이오.”</p>	

About '사회적 합의와 법'		
What	정당성과 합의에 기반을 둔 법은 규범력을 가지기에 이에 충돌되는 하위 규범은 법에 대항하지 못한다.	
Meaning	지역사회의 관행에 의해 정당성과 합의에 기반을 두어 규범력을 가진 법이 무시된다면 국가적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How	정당성과 합의에 기반을 둔 법은 규범력을 가지기에 이에 충돌되는 하위 규범은 법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리		
What	①	거주지에 적용되는 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거주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거주지의 법에 따르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준법의무가 나올 수 있음.
	②	사회적 합의란 강요된 합의나 기망에 의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함. 법이란 그 형식으로 인해 정당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때만 정당성이 담보됨.
	③	정당성과 합의에 기반을 둔 법은 규범력을 가지기에 이에 충돌되는 하위 규범은 법에 대항하지 못함.
	->	법의 규범력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와 법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으로부터 나오며, 규범력을 갖춘 법은 이와 충돌하는 관습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Meaning	①	법치주의 국가에서 준법의무를 어긴다면 국가의 작용은 형해화될 것이다. 묵시적 합의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
	②	강요된 합의나 국민을 기망하여 얻어 낸 형식적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에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없음. 그리고 아무리 사회적 합의를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결여한 법률에 의해서는 준법의무가 도출될 수 없음.
	③	국가적 차원에서의 합의가 지역적 차원에서의 합의를 포함하지 못한다면 규범력에 문제가 생긴다.
	->	①, ②를 통해 자유로운 선택이 사회적 합의의 전제가 됨을, ②를 통해 실질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③을 통해 규범력을 가진 법령과 지역 사회 관습의 우열관계에 대해 알 수 있다.
How	①	개인들이 국가 작용에 대한 합의를 더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②	합의의 내용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가를 선진 국민의식을 가지고 계속 감시해야 함.
	③	정당성과 합의에 기반을 둔 법은 규범력을 가지기에 이에 충돌되는 하위 규범은 법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해결책	① 개인들이 국가 작용에 대한 합의를 더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② 합의의 내용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가를 선진 국민의식을 가지고 계속 감시해야 함.
		③	정당성과 합의에 기반을 둔 법은 규범력을 가지기에 이에 충돌되는 하위 규범은 법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화	합의	국민소환제, 배심제 등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
		정당성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쌍방향적 매체인 인터넷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
		규범력	합의와 정당성이 갖추어지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
답안			
서론	법의 규범력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와 법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으로부터 나오며, 규범력을 갖춘 법은 이와 충돌하는 관습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①, ②를 통해 자유로운 선택이 사회적 합의의 전제가 됨을, ②를 통해 실질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③을 통해 규범력을 가진 법령과 지역사회 관습의 우열관계에 대해 알 수 있다.		
본론1	먼저 법의 규범력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②의 스파르타 국민들의 강요된 합의나 리쿠르고스에 의한 기망적 합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 이에 대해 ①의 소크라테스는 거주지에 적용되는 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거주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거주지의 법에 따르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사회적 합의는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함을 보여준다.		
본론2	그러나 아무리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바로 법의 규범력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때라야 규범력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②의 스파르타의 법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행해지는 국가작용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칠 뿐이다.		
본론3	일단 법이 사회적 합의와 그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으로 규범력을 얻게 되면 그와 충돌하는 지역 사회의 관습에 대해 우월성을 가진다. ③의 문제 상황에서 아무리 가막도의 풍습이 외지사람을 살인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관념에 부합하고 전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포함하기에 국가의 법에 대항할 수는 없다.		
결론	요컨대 법의 규범력은 사회적 합의와 실질적 정당성을 근거로 성립한다. 그렇기에 국민소환제, 배심제 등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여 개인들이 국가 작용에 대한 합의를 더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쌍방향적 매체인 인터넷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법의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리논술>	④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십시오. (25점)
	1. (가)의 상황에서 왕이 예측 1을 하고 정책 1을 선택한다고 하자. 이 경우 시민들은 왕에게 제재를 가하겠는가
	2. (가)의 상황에서 왕이 시민들의 제재로 입게 될 손실까지 고려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최대화한다고 하자. 왕이 각 예측 하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 설명하십시오.
	3. (나)의 상황에서 왕의 선택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자. 왕이 각 예측 하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 설명하십시오.
	4. (나)의 상황에서 왕이 정책 3을 선택하면 시민들은 크기 6의 손실로 왕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령을 제정하려고 한다. 사회적 이익의 기댓값이라는 관점에서 이 법령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왕이 예측 3을 하게 되면 사회적 이익은 법령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작다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제시문 ④

스파르타의 왕은 다음의 세 가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정책 1: 저수지를 만든다.
 정책 2: 방풍림을 조성한다.
 정책 3: 시민공원을 만든다.

왕은 스파르타의 기후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예측한다.

예측 1: 큰 가뭄
 예측 2: 심각한 한파
 예측 3: 평온한 기후

각각의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시민들이 누리게 될 사회적인 이익은 세 가지 예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정책1	정책2	정책3
예측1	150	50	100
예측2	50	150	100
예측3	50	50	100

반면 각각의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왕이 누리게 될 개인적인 이익은 예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정책1	정책2	정책3
예측1	7	5	10
예측2	5	7	10
예측3	5	5	10

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하고자 하며 시민들도 이를 알고

<p>있다.</p> <p>(가) 시민들은 왕의 예측이 무엇인지 안다. 각 예측 하에서 왕의 선택이 시민들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은 왕에게 크기 6의 손실로 제재를 가한다.</p> <p>(나) 시민들은 왕의 예측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만 그가 어떤 예측을 할지에 대한 확률분포만 안다. 따라서 시민들은 (가)와 같은 방식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확률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td> <td style="text-align: center;">확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측1</td> <td style="text-align: center;">0.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측2</td> <td style="text-align: center;">0.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측3</td> <td style="text-align: center;">0.2</td> </tr> </table>			확률	예측1	0.4	예측2	0.4	예측3	0.2										
	확률																		
예측1	0.4																		
예측2	0.4																		
예측3	0.2																		
<p>1) 1번 문제 풀이</p> <p>(가)의 상황에서는 왕의 정책 선택이 시민들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에 의해 왕은 제재를 받는다. 왕은 예측 1에서 사회적 이익을 150으로 최대화하는 정책인 정책 1을 선택했다. 따라서 시민들은 왕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다.</p> <p style="color: green;">삼단 논법으로 대전제 - 소전제 - 결론에 따라 논증을 하여 설득력을 담보함.</p>																			
<p>2) 2번 문제 풀이</p> <p>예측1일 때 정책1이, 예측2일 때 정책 2가, 예측 3일 때 정책3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므로 각 예측에서 이와 다른 정책을 선택하면 왕의 개인적 이익은 6의 손실을 입는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왕의 개인적 이익은 다음 표와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책1</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책2</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책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측1</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측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측3</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able>					정책1	정책2	정책3	예측1	7	-1	4	예측2	-1	7	4	예측3	-1	-1	10
	정책1	정책2	정책3																
예측1	7	-1	4																
예측2	-1	7	4																
예측3	-1	-1	10																
<p>따라서 왕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면 예측1 하에서 정책1을, 예측2 하에서 정책2를, 예측3 하에서 정책 3을 선택할 것이다.</p> <p style="color: green;">고려대는 복잡한 수식을 쓰지 않고 표로써 자신의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를 좋아하므로 표를 사용하여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함.</p>																			
<p>3) 3번 문제 풀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책1</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책2</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책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측1</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측2</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측3</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able>					정책1	정책2	정책3	예측1	7	5	10	예측2	5	7	10	예측3	5	5	10
	정책1	정책2	정책3																
예측1	7	5	10																
예측2	5	7	10																
예측3	5	5	10																
<p>위의 표는 왕의 여러 예측 상황에서 각 정책을 선택했을 때 왕이 획득하는 개인적 이익을 보여주는 표이다. 시민들은 왕의 예측을 모르고 제재 또한 가할 수 없으므로 왕은 자신의 예측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최대화 되는 정책을 택할 것이므로, 모든 예측에서 항</p>																			

상 개인의 이익이 10으로 최대가 되는 정책 3을 택할 것이다.

4) 4번 문제 풀이

시민들이 왕의 정책3을 택하면 왕에게 크기 6의 제재를 가하므로, 이 경우 왕의 개인적 이익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정책1	정책2	정책3
예측1	7	5	4
예측2	5	7	4
예측3	5	5	4

그러므로 이 경우에 왕은 예측1 일 때 정책 1을, 예측 2일 때 정책 2를, 예측 3일 때 정책 1 또는 2를 선택할 것이다. 각 예측 하에서 시민들의 사회적 이익은 각각 150, 150, 50이므로, 이 경우 사회적 이익의 기댓값은 $150 \times 0.4 + 150 \times 0.4 + 50 \times 0.2 = 130$ 이다. 그런데, 법령이 없을 때 왕은 항상 정책 3을 선택하므로 사회의 기대이익은 100이다. 따라서 법령의 존재가 사회의 기대이익을 증가시킨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만약, 예측 3이 실현된다면 법령이 없을 때 왕은 정책 3을 선택할 것이므로 사회적 이익은 100이지만, 법령이 있으므로 왕은 정책 1 또는 2를 선택할 것이므로 사회적 이익은 50이 된다. 즉, 이 때 사회적 이익은 법령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작아진다. 이때는 법이 사회적 합의 내지 동의를 얻기 힘들기에 정당성이 결여되므로 법령을 어기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건적으로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할지 몰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령을 어기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음을 지적하여 수리논술이 인문논술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해줌.

The 논술	2015 고려대 모의 인문계A / 인문계 B
--------	--------------------------

<인문계 A>	①과 ②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관해 논술하십시오. (75점 - 1000자 ±50자)
<인문계 B>	①과 ②를 활용하여 '관행과 사회변화'에 관해 논술하십시오. (75점 - 1000자 ±50자)

제시문 ①

발명가가 어떤 새로운 기술의 용도를 발견하면 그 다음 단계는 사회가 그 기술을 채택하고 설득하는 일이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데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해서 당장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기술 중에서도 끝까지 채택되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저항을 겪은 후 간신히 채택된 기술이 무수히 많다. 가장 악명 높은 예를 찾는다면 1971년 미 의회가 초음속 운송 수단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거부한 일, 능률적으로 설계된 타자기 자판을 전 세계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일, 그리고 영국이 오랫동안 전기 조명을 채택하지 않았던 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사회로 하여금 어떤 발명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어떤 한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발명품에 대한 수용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자. 발명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어도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가장 명백한 요인은 기존의 기술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경제적 이점이다. 바뀌는 근대 산업 사회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았다. 고대 멕시코 원주민들은 바퀴 달린 탈것을 발명했지만 그것의 용도는 운송이 아니라 장난감이었다. 물론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고대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바퀴 달린 탈것을 끌게 할 만한 가축이 없었으므로 그것은 짐꾼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가치관 및 위신의 문제이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의 문제에 우선할 수도 있다. 가령 일반 청바지도 똑같이 튼튼하지만 오늘날 수백만명이 그 두 배 값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구입하고 있다. 이것은 그 상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격 차이보다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이다. 타이핑한 문서라면 거의 다 그렇듯이 이 글도 역시 '쿼티(QWERTY) 자판(윗줄 왼쪽의 여섯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타이핑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같은 자판 배열은 1873년에 공학(工學)의 흐름을 거슬러 태어났다. 즉,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하여 타이핑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를테면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들을 자판의 각 줄에 두루 흩어 놓았고 주로 왼쪽으로 몰아 놓았다(이렇게 되면 오른손잡이들이 서투른 왼손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견 비생산적인 듯한 자판을 설계한 이유는, 1873년 당시의 타자기는 인접한 글자들을 연달아 빠르게 치면 글쇠들이 엉켜 버렸으므로 제조업자들이 타자수들의 타이핑 속도를 늦춰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타자기가 개선되어 이 엉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1932년에 능률적으로 다시 배열된 자판을 시험해 본 결과 타이핑 속도는 두 배나 빨라지고 타이핑에 드는 힘은 95%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쿼티 자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뒤였다. 그 동안 쿼티 자판을 사용하던 수억의 타

자수, 타자 교사, 타자기와 컴퓨터의 제조업자 및 판매원 등의 기득권 때문에 그로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자판의 능률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좌절당하고 있는 것이다.

쿼티 자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이면서도 경제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빚어지는 일도 많았다. 가령 트랜지스터는 원래 미국에서 발명되고 특허까지 받았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일본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볼 정도로 트랜지스터화된 전자 제품의 세계 시장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전자 소비자 제품 업계는 한창 진공관 모델을 양산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만든 제품과 경쟁하는 것을 꺼렸고 그때 소니 사(社)가 웨스턴일렉트릭 사(社)로부터의 제조 허가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독일의 도시들이 도로의 조명을 전기로 바꾼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왜 영국의 도시들은 1920년대까지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영국의 각 시 당국이 가스 조명에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과 경쟁하는 전기 조명 회사들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신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 그 기술의 이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난이도의 문제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 아직 총포류가 들어오지 않았던 1340년, 영국의 더비 백작과 솔즈베리 백작은 스페인에서 우연히 타리파전투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 전투에서는 아랍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대포를 사용했다. 두 백작은 그 광경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영국군에게도 대포를 소개했다. 영국군은 열광적으로 그 대포를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6년 후인 크레시 전투에서 이미 프랑스 병사들에게 써먹기 시작했다.

About '사회발전' (A형)

What	사회발전이란 혁신적 기술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Meaning	혁신적 기술이 기존의 관행에 막혀 제대로 도입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How	혁신적 기술을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시문 ②

각 고을의 여러 창고에는 모두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으니, 이름 하여 절목(節目)이라 한다. 처음 절목을 정할 때에도 잘되지 못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 온 수령들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고치면서 모두 사사로운 생각에 자기에게만 이롭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만들었으니, 거칠고 잡되고 구차하고 고루하여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다. 이를 핑계로 그 절목을 폐지하고 임의로 새로운 영(令)을 시행하니, 무릇 백성을 착취하는 절목은 해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늘어나기 마련이다.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다.

내가 우연히 몇 고을의 절목을 얻어서 보니, 그중에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명목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연회 때 쓰는 포장과 자리를 만드는 비용 300냥은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관리가 행차할 때 타는 두 필 말이 끄는 가마 비용 20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관의 말을 민간에 위탁하여 사육하는 비용 15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문서 수발을 맡은 아전에게 주는 각가(脚價; 발품 값) 1천 20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목들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전에 탐

관이 있어 한번 함부로 징수하면, 이후의 수령들은 이를 전례로 핑계 대고 다시 삭제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중에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전이 탐관을 만나 은밀히 뇌물로 꺾어 영구한 이익으로 삼은 것이니, 가령 각가가 1천 200냥이 되는 따위가 그것이다. 감영에 올리는 문서보고가 아무리 자주 있다 하더라도 한 달에 사람을 보내는 횟수는 불과 대여섯 번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매달 꼭 100냥씩이 들어간단 말인가? 애초에 각가를 증액시킬 때 뇌물을 바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수령으로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났거든 여러 창고의 절목들을 조목조목 조사하고 물어 그 이롭고 해로움을 알아내어, 그중에서 사리에 맞는 것은 표시하여 드러내고, 사리에 어긋나는 것은 고쳐야 한다. 물건 값이 예전에는 싼으나 이제 와서 오른 것은 의논하여 값을 올려주고, 예전에는 비쌌으나 이제 와서 내린 것은 그대로 후하게 해주며, 민호(民戶)가 예전에는 번성했으나 이제 와서 쇠잔해진 경우에는 의논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며, 예전에는 적었으나 이제는 많아진 경우에는 옮겨서 고르게 해야 한다. 사리에 맞지 않으면서 수령만 이롭게 하는 것은 고쳐 없애고, 법에 없는데도 여러 가지로 거두는 것은 한도를 정해야 한다. 정말히 생각하고 살피며 널리 물어서 용단을 내리되, 뒷날의 폐단을 고려해서 막아버리고, 못사람의 뜻을 좇아 법을 확고하게 세우고 공평하게 지키면,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떠나간 후에 뒷사람이 지키는지 여부는 비록 알 수 없지만,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살피서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About '사회발전' (A형)	
What	사회발전이란 소극적으로는 사회적 낭비를 줄임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Meaning	아무리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라 하더라도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가 자행되는 이상 발전된 사회라고 볼 수는 없다.
How	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
정리	
What	① 사회발전이란 혁신적 기술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② 사회발전이란 소극적으로는 사회적 낭비를 줄임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사회발전이란 적극적으로는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여 물질적 차원에서 발전을 이루고, 소극적으로는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 잡아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Meaning	① 혁신적 기술이 기존의 관행에 막혀 제대로 도입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② 아무리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라 하더라도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가 자행되는 이상 발전된 사회라고 볼 수는 없다.
	-> ①은 혁신적 기술의 도입을 막는 관행을, ②는 사회적 낭비를 생산하는 부정부패에 대해 보여준다.
How	① 혁신적 기술을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② 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
	1. 제시문에서 나온 해결책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는지 '역'을 생각해볼 것.

	EX) 제시문에서 나온 해결책이 사회적 감정(정신)이라면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추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2. 해결책이 모두 정리되면 이제 그 내용을 구체화	
	EX) 사회적 감정 -> SNS를 통한 사회적 감정의 전 세계적 교류	
다른 대안	적극 / 소극, 물질/ 정신이므로 그 자체로 완결성을 지니기에 다른 대안은 생각할 필요가 없음.	
구체화	기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름 카메라 회사들이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디지털 카메라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결과 파산하게 된 것을 볼 때 가능성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음. 2. 회사에게만 이런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 3. 사회구성원들이 혁신적 기술의 장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개설.
	낭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자들이 고도의 윤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임용시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재직 중에도 정기적으로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2. 부조리에 대한 감시기관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함.
답안		
서론	사회발전이란 적극적으로는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여 물질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이루고, 소극적으로는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 잡아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①은 혁신적 기술의 도입을 막는 관행을, ②는 사회적 낭비를 생산하는 부정부패에 대해 보여준다.	
본론1	기술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도서관의 책을 볼 수 있고, 책을 보다가 궁금한 점을 검색해볼 수 있으며, 독후감을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발명 혹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시문 ①에서 알 수 있듯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기술에 적응된 사회의 저항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본론2	또한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사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라 하더라도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가 자행되는 이상 발전된 사회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론1	이를 토대로 볼 때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의 발 빠른 수용과 사회적 낭비의 제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적극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해법은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당장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가능성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필름 카메라 회사들이 당장의	

	<p>이익에 눈이 멀어 디지털 카메라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결과 파산하게 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회사에게만 이런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의 금전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이 혁신적 기술의 장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p>
결론2	<p>다음으로 소극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해법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들이 고도의 윤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임용 시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재직 중에도 정기적으로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부조리에 대한 감시기관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수리논술> <A/B공통></p>	<p>③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 (25점)</p>
	<p>1. 만약 시민들이 (가)에 나타난 사용 만족감만을 고려하여 메신저 앱 서비스를 고른다면, 몇 명의 시민들이 A를 쓸 것인가</p>
	<p>2. 이제 시민들은 (나)에서처럼 총편익을 고려하여 그들이 사용할 앱을 고른다. 각 앱의 사용자가 위 1에서 구해진 결과와 같을 때 현재 사용하는 앱을 다른 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겠는가? (단 시민들이 앱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앱의 사용자 수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기존의 사용자 수이다.) 이 경우 10명의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p>
	<p>3. 모두가 C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보다 시민의 총편익을 더 크게 한다는 것을 보이시오. 그럼에도 (다)의 상황에서는 A에서 C로 전환할 시민이 없다는 것을 보이시오. 이러한 결과를 간략히 해석하시오.</p>
<p>제시문 ③</p>	
<p>(가) 10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가 있고, 각 시민들에게는 [1, 2, ..., 9, 10] 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시민들은 스마트 폰의 메신저 앱을 사용하여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시중에는 A와 B 두 종류의 메신저 앱이 있고, 시민들은 이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한다. 메신저 앱을 통한 대화는 동일한 앱을 사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시민 x는 A를 사용할 때와 B를 사용할 때 다른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는 데, 그 만족감은 다음의 식과 같다. A를 사용할 때 만족감 = $2x$ B를 사용할 때 만족감 = $10-x$ 단, $x=1,2, \dots, 10$이다. 예컨대, 시민 1이 A를 사용할 때 만족감은 2고, B를 사용할 때 만족감은 9다.</p>	
<p>(나) (가)에서 설명한 사용자의 만족감에 더하여 같은 앱을 사용하는 시민의 수가 많을수록 앱 사용으로부터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한다. 만약, A의 사용자 수가 n이라면, A를 사용할 때 시민 x가 얻는 총편익은 $2x+n$이고 B를 사용할 때 시민 x가 얻는 총편익은 $10-x+(10-n)$이다.</p>	
<p>(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메신저 앱 B가 사라지고 모든 시민이 A를 사용하고 있다. 기술 혁신으로 사용자의 만족감이 개선된 메신저 앱 C가 출시되었다. 시민 x가 C를 사용할 때의 만족감은 $2x+5$이다.</p>	
<p>1) 1번 문제 풀이</p>	

<p>시민들은 A를 사용할 때 만족감이 B를 사용할 때보다 크다면, A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A를 사용할 때 만족감인 $2x$가 B를 사용할 때 만족감인 $10-x$보다 크다면 그 시민은 A를 사용할 것이다.</p> $2x > 10-x$ $3x > 10$ $x > 3.333\dots$ <p>x는 시민을 뜻하고 시민은 1~10까지의 자연수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시민4부터 시민10까지는 A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때 A를 사용하는 시민은 총 7명이다.</p>
<p>삼단 논법으로 대전제 - 소전제 - 결론에 따라 논증을 하여 설득력을 담보함.</p>
<p>2) 2번 문제 풀이</p> <p>만족감에 추가로 사용자의 수에 따른 편익까지 고려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A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사용자가 B로 넘어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더 적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던 B에서 A로 옮겨갈 시민이 없는지를 탐구해보아야 한다. 먼저 시민 3의 상황을 파악해보자. 추가적인 편익을 고려한다면 원래 사용하던 B에서 얻는 편익은 만족감과 사용자 수에 따른 편익을 더한 값인 10이다.</p> $\{10-3\}+3\}$ <p>그런데, 시민3이 A로 옮긴다면 이미 A를 사용하고 있던 7명 때문에 7의 편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되어 총편익은 13이 된다.</p> $\{(2 \times 3)+7\}$ <p>따라서 시민 3은 A로 교체를 할 것이다.</p> <p>그 다음으로 시민 2의 상황을 파악해보자.</p> <p>시민 3이 A로 교체를 하였으므로 추가적 편익을 고려했을 때 B에서 얻는 편익은 10이다.</p> $\{(10-2)+2\}$ <p>그런데 A에서 얻는 편익은 12이다.</p> $\{(2 \times 2)+8\}$ <p>따라서 시민 2도 A로 교체를 할 것이다.</p> <p>마지막으로 시민 1의 상황을 파악해보자.</p> <p>시민 2, 3이 A로 교체를 하였으므로 추가적 편익을 고려했을 때 B에서 얻는 편익은 10이다.</p> $\{(10-1)+1\}$ <p>그런데 A에서 얻는 편익은 11이다.</p> $\{(2 \times 1)+9\}$ <p>따라서 시민 1도 A로 교체를 할 것이다.</p> <p>시민 1, 2, 3이 모두 A로 교체를 하였으므로 시민 10명 모두 A를 사용한다는 결론이 난다.</p>
<p>추가적인 조건을 분석하고 1번 답안의 연장선상에서 논의의 시작점을 시민 3으로 정함. 그리고 시민 3, 시민 2, 시민 1을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연쇄적으로 논증하여 결론을 내림.</p>

3) 3번 문제 풀이

모두 A를 사용할 때의 시민 x 의 편익은 $2x+5+10$ 이다.

그런데 모두 C를 사용할 때의 시민 x 의 편익은 $2x+10$ 이므로 모두가 C를 사용할 때의 시민들의 총 편익이 더 크다.

하지만 만족감과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편익에 따라 모든 시민이 A앱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시민 x 가 A를 사용할 때의 편익은 $2x+10$ 인데 반해, C를 사용할 때의 편익은 $2x+5+1$ 에 그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아무도 C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위의 제시문①에 나온 것처럼 사회적 관행에 의해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정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에 따라 순차적으로 논증을 하였고, 후에는 이 논의를 인문논술과 연결시켜서 제시문 ③도 답안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줌.